2016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

| 장소 |
태권도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전시기간 |
2016. 12. 16.TUE
|
2017. 7. 30.SUN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

태권도, Taekwondo, Facing the World
세계와 마주하다

일러두기

1. 이 책은 국립태권도박물관이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 진행하는 기획전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전시도록이다.
2. 도록에 실린 도판의 사작권은 해당도판소재자에 있으며, 도록에 게재된 자료와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도판의 캡션은 유물명, 크기, 시대, 설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4. 유물의 크기 단위는 cm이고, 세로-가로-높이 순으로 표기하였다.
5. 도록에 실린 유물은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소장하여 관리하며, 일부는 단체 개인 대여 유물로 '-소장'으로 표기하였다.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

Taekwondo, Facing the World

발행일
2017년 6월 23일

펴낸곳
태권도진흥재단
(55547)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Tel 063)320-0604 Fax 063)320-0032
www.tkdwon.kr

디자인
(주)디자인인프로
Tel 02)2285-0789
www.goia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56-000345-01

ISBN
978-89-29-01166-3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

Taekwondo,
Facing the World

목차 contents

발간사 010
전시개요 014

Ⅰ 태권도의 조직화

1. 기간도장[illegible]과 신흥관 018
2. 대한태권도협회 028
3. 국기원 034
4. 세계태권도연맹 043
5. 태권도진흥재단 048

Ⅱ 태권도의 경기화

1. 겨루기 및 품새대회 056
2. 경기용품 070

Ⅲ 태권도의 세계화

1.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080
2.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089
3. 아시안게임 100
4. 올림픽 104

논고 117
전시장 둘러보기 131
도판목록 142

발간사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는 1947년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출간하면서 발표한 '나의 소원'중 일부입니다. 백범 선생이 말한 진정한 문화 즉,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문화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과 같은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개원한 국립태권도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태권도'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설립된 문화시설로 그 내부에 위치한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전 세계 유일한 태권도 전문박물관입니다.

각 전시실에서는 한국 전통무예를 계승한 태권도 발전의 역사는 물론 태권도 정신과 철학, 기술체계, 그리고 각종 수련 및 경기용품 등과 같이 무예와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을 수집·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문화콘텐츠인 로보트 태권V, 트락아트존 등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은 태권도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써 태권도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성태

Forword

> "I hope that our country becomes the most beautiful nation in the world. My wish is not for my homeland to become the most powerful and richest country in the world. I have felt the pain of being invaded by another country, so I do not wish for my country to invade another's. Just enough wealth to keep our life abundant, and just enough power to stop others from invading is enough. The only thing that I wish we overflow with is the power of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will make not only us happy, but also give happiness to others."

This is an excerpt from 'My Wish' that was part of the 'Baekbeom Journals' published by Baekbeom Kim Gu in 1947. In order to foster true culture that Kim Gu spoke of, which is the power of culture that can make us and others happy, it is necessary to expand cultural facilities such as museums, art galleries and libraries to elevate national accessibility to culture.

The Taekwondowon, which was opened in 2014, is a cultural facility that was established to effectively share 'taekwondo' with not only Koreans, but the entire global community. The National Taekwondo Museum that is located inside of Taekwondowon is the world's only taekwondo museum.

The exhibit halls introduces the history of taekwondo's development that continues the legacy of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s, as well the taekwondo spirit and philosophy, skills and techniques, and other valuable materials of taekwondo as a martial art and sport such as training and sparring equipment. Furthermore, visitors can also enjoy various cultural contents made with taekwondo such as Robot Taekwon V and the Trick Art Zone.

As the central institute of the taekwondo culture, our museum pledges to fulfill its role in shar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taekwondo with the world, and for conducting research on taekwondo.

Kim Sung-tae
President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전시를 열며

2016년 12월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세 번째 기획전시인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전시회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태권도가 묵묵히 걸어온 시간의 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무예를 계승한 태권도가 우리에게 다가온 1940년대부터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무예 중 하나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기를 중심으로 3부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광복 이후 설립된 기간도장(基幹道場)인 9대관부터 현존하는 태권도 단체와 기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립된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인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국기원, 태권도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WTF) 그리고 태권도의 성지인 국립태권도원을 조성·운영·관리하고 태권도 역사와 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TPF)의 설립과정과 주요 기능 및 사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는 국내 태권도 경기대회를 통한 태권도의 경기화 및 대중화를 도복, 보호구 등과 같은 태권도 경기용품의 시대별 변화모습과 국내 겨루기 및 품새대회의 메달·트로피를 통해 확인하보실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을 대표적인 국제대회인 올림픽,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과 같이 다양한 국제 경기대회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구성을 갖춘 기획전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귀중한 소장품과 자료를 제공해주신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WTF, 기증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태권도 경기대회에서 획득한 소중한 메달과 트로피를 대여해주신 선수 여러분들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좋은 글을 써주신 양진방, 송형석 교수님과 전시개막까지 불철주야 애쓴 박물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태권도'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립태권도박물관장
서봉준

Opening the Exhibition

In December of 2016, the National Taekwondo Museum held its third special exhibit <Taekwondo Facing the World>. This exhibit was planned out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back upon the history of taekwondo focusing o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Taekwondo Museum. It was comprised of three parts focusing on the 1940s when taekwondo, which continues the legacy of traditional martial arts of Korea, became widespread in Korea, all the way until it has grown into one of the favorite martial arts of the entire world.

Part 1 shows the Nine TKD Halls established after Korea gained its independence from Japan, as well as the taekwondo organizations and institutes that exist today. It displays the founding process, main features, and businesses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which was the first to be established; Kukkiwon that is the central hub of taekwondo practitioners around the world;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that leads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and th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TPF) that built, operates and manages the Taekwondowon, which is the holy grounds of taekwondo, as well working on promoting taekwondo through studies and research 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taekwondo.

In Part 2, visitors can take a look at the transition of taekwondo into a sport and its popularization achieved through domestic taekwondo competitions by examining the changes in taekwondo match equipment such as the uniform and protective gear, as well as medals and trophies of domestic Kyorugi(Sparring) and Poomsae(Forms) competitions.

Part 3 introduces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competitions such as the Olympics,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Asian Games.

Many people contributed in making this special exhibit possible. I would first like to extend my deepest thanks to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Kukkiwon, WTF and other donors who provided such valuable collections and materials.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athletes who let us borrow their priceless medals and trophies won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aekwondo competitions. Also, my sincere appreciation goes to Professor Yang Jin-bang and Professor Song Hyeong-seok who bestowed great letters to us, and the employees of the museum who worked day and night to open this exhibit on time. I hope that this exhibit will serve as a chance for many visitors to gain deeper understanding of taekwondo.

Seo Bong-joon
Director, National Taekwondo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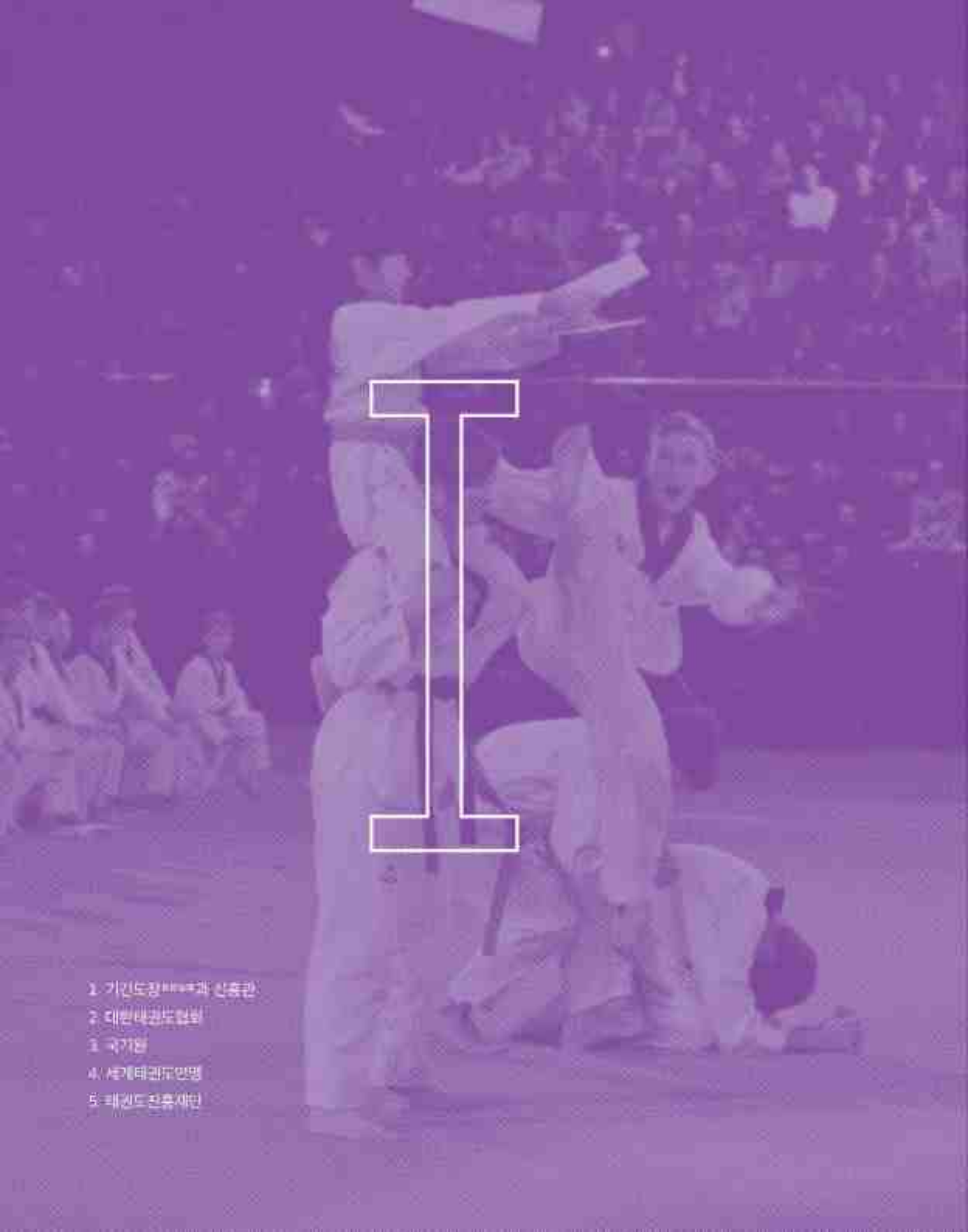
전시개요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태권도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태권도'라는 용어는 1965년 공식 명칭이 제정되기까지 화수도, 당수도, 공수도, 권법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국내 태권도 관련 단체 또한 1965년 대한태권도협회를 시작으로 1970년대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WTF), 2005년에는 태권도진흥재단(TPF)이 설립되었다. 이와같은 태권도 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태권도는 한국전통 무예에서 벗어나 세계인들의 무예로서 국내·외로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었다. 본 전시를 통해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와 그 관련 단체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태권도의 경기화 및 대중화, 세계화를 조명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Introdoction

'Taekwondo, Facing the World, is an exhibition prepared to take a look at how Taekwondo has developed over the years centering o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Taekwondo Museum. Taekwondo had been given many names such as Hwasudo, Dangsudo, Gongsudo, and Gwonbeop before the official title, 'Taekwondo', was decided in 1965, and the Taekwondo related organization in Korea started out as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1965 and evolved into Kukkiwon and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in the 1970's and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TPF) in 2005. Taekwondo could develop from the martial arts of Korea into the martial arts of the world and spread throughout the globe through the efforts of these Taekwondo organizations.

I hope this exhibition becomes an opportunity to view the history of Taekwondo and its related organizations from the national liberation to today and examine the competition, popularization, and worldwide propagation of Taekwondo through the collection of relics of the National Taekwondo Museum.



1. 기간도장[illegible]과 신흥관
2. 대한태권도협회
3. 국기원
4. 세계태권도연맹
5.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의 조직화

태권도 관련 단체의 경우 6.25전쟁 중인 1953년 5월 부산에서 '대한공수도협회'가 발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포고령 6호를 통해 유사 사회단체의 재등록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통합창립위원회가 발족되어 '대한태수도협회'가 탄생하였고, 1965년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최초의 태권도 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와 1972년 창설된 국기원, 그리고 1973년 출범한 세계태권도연맹(WTF), 2005년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TPF)까지 창설되며, 태권도는 조직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In the case of Taekwondo related organizations, the 'Korean Gongsudo Association' was launched in Busan in May 1953. In 1961, the re-registration of the similar social organizations was carried out through the decree 6 of the National Rehabilitation Summit. The founding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create the "Korean Taesudo Association" and the "Korean TKD Association of Korea" in 1965 Respectively. The first Taekwondo organization was created, the Kukkiwon was founded in 1972,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was launched in 1973, and th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TPF) was established in 2005. Taekwondo is organized I could develop.

1 기간도장(基幹道場)과 신흥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된 후 뜻있는 사범들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하에서 왜색된 다양한 형태의 우리나라 고유 무예를 개선, 단일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즉 외세의 억압 아래 살아온 36년의 세월 속에 변질된 다양한 외래 무술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민족 고유의 전통을 내포한 무예로 재정립하고 통일시켜 국가적인 스포츠로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해 서울을 중심으로 태권도 기간도장(基幹道場)과 신흥관들이 태동하게 되었다. 6·25전쟁 이후에는 신흥도장이 등장하며, 태권도는 빠르게 조직화되었다.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on August 15, 1945, martial arts masters had the idea of improving and unifying a variety of forms of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s that had been divided during Japanese rule. In other words, they agreed to prevent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martial arts that had been corrupted during the 36 years of foreign oppression and reorganize and unify Korean martial arts harboring the nation's unique tradition into a national sport. This was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key taekwondo halls mainly in Seoul. New Taekwondo halls opened following the Korean War and Taekwondo became organized quickly.

청도관

지도관

무덕관

창무관

송무관

오도관

강덕원

한무관

정도관

001. **청도관 상징패**

지름 27.7

이북국에 의해 창설된 5개 기간도장 중 가장 먼저 창설된 당수도 청도관은 문자 그대로 '젊은 청년의 꿈과 기개가 푸른 바다처럼 멀리 퍼져 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본관으로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강석봉의 국무관, 서울 서대문구 이용우의 청도관이 있었으며, 광주 고재천의 정광관, 최홍희의 오도관 등도 그 뿌리는 청도관이었다.

Chungdoiowan Emblem Copper Plate

Diameter 27.7

Dangsudo Chungdogwan was the first of the five halls founded by Won-guk Lee with the motto, 'Spread dreams and ambitions of young people as far as the blue waves reach' as its tenet indicated. Chungdogwan's branches include Jeong Kang's Gukmugwan in Incheon and Yong-woo Lee's Jeongdogwan in Seodaemun-gu, Seoul, and Jae-chun Goh's Chungryonggwan in Gwangju and Hong-hee Choe's Odogwan also had their roots in Chungdogwan.

3부
태권도의
주도권

002. **지도관 상징패**

지름 27.7

1946년 3월 3일 원상설에 의해 '조선연무관 공수도부'로 창설되었다. 하지만 6.25전쟁 이후 창설자 전상천이 행방불명되면서 사실상 조선연무관 공수도부는 폐쇄되었고 그 명칭도 "지혜로운 집"이란 "지도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Jidogwan Emblem Copper Plate

Diameter 27.7

Jidogwan was originally established as 'Joseon Yeonmugwan Gongsudobu' by Sang-sun Jeon on March 3, 1946. However, the founder, Jeon, went missing after the Korean War and the Joseon Yeonmugwan Gongsudobu was virtually disbanded and its name was changed to 'Jidogwan' meaning 'Wise Path'.

003. 무덕관 상징패

지름 28

황기에 의해 '운수부무우회당수도부'로 창설되었다. 교통부 운수회의 부설 형식으로 무덕관이 생긴 것이 단체의 시작점이지만, 정확한 창설연대는 나와 있지 않아 1947년 이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Moodukkwan Emblem Copper Plate

Diameter 28

Moodukgwan was originally established as 'Unsubumudoo Dangsubu' by Gi Hwang. It was originally a martial arts club under the Transportation Division of the Transportation Ministry. The exact year of foundation is unknown and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it was established around 1947.

004. 창무관 상징패

지름 27.7

조선연무관에서 전상섭과 함께 당수도를 가르치던 윤병인에 의해 1946년 서울 종로에 위치한 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YMCA권법부'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다. 하지만 6.25전쟁 이후 윤병인이 행방불명되어 그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무관을 설립했다. 창무관은 영창고등학교의 '창'과 무도인의 '무'자를 합해 명명한 것으로 두 마리 용을 상징물로 삼았다.

Changmookwan Emblem Copper Plate

Diameter 27.7

Changmoogwan was established by Byung-in Yoon who taught Dangsudo with Sang-seop Jeon at Joseon Yeonmugwan at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in Jongno, Seoul in 1946 with the title, 'YMCA Gwonbeopbu'. The title, Changmoogwan, was coined by taking 'Cang' from Yeongchang High School and 'Moo' from martial artist(Moodoin) and it has two dragons in its emblem.

004. **송무관 상징패**

Diameter 28

송무관을 창설한 관장은 관명에 대하여 "송은 십장생의 하나인 소나무의 푸르고 역동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 유학생 시절 공수도에 입문한 후 나고시 선생의 송도관의 송을 빌려온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Songmookwan Emblem Copper Plate

지름 27.7

Songmoogwan was established by Byeong-jik Roh. Regarding the name of the hall, Master Roh said, "'Song' represents the dynamics of the pine tree, an evergreen, is one of the ten symbols of longevity, and the pine tree is also representative of Korea. Moreover, I borrowed 'Song' from Master Funagoshi's 'Songdogwan' where I was introduced to Gongsudo while studying in Japan."

005. **오도관 상징패**

Diameter 26.4

오도관은 군인 출신의 최홍희에 의해 1954년 강원도 용대리에서 창설되었으며, 여기에는 남태희 또한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오도관의 명칭에 대해 최홍희는 '오도'는 공자가 "나는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吾道一以貫之)"라는 말과 비슷한 자신의 성격과 태권도를 전 세계로 뻗쳐지게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Odogwan Emblem Copper Plate

지름 26.4

Odogwan was established in Yongdae-ri, Gangwon-do by a former military officer, Hong-hee Choi in 1954. About the name of the hall, Choi said, 'Odo' reflects his character that is similar to Confucius's saying of "Walking on only one path" and his will to spread taekwondo throughout the world.

367 **강덕원 상징패**

Diameter 27.7

1956년 YMCA권법부에서 수련한 홍정표와 박철희 두 사람이 창설했다. 서울 신설동에 도장을 마련한 강덕원은 '강할 강'과 '큰 덕'을 따서 '덕을 가르치는 힘'이라는 명칭을 표방했다.

Kangdukwon Emblem Copper Plate

지름 27.7

This hall was established in 1956 by two people, Jeong-pyo Hong and Cheol-hee Park who trained at YMCA Gwonbeopbu. Gangdeokwon was established in Sinseol-dong, Seoul and the name of the hall means the 'Power to Learn Virtue' by putting together the meanings of each syllable, 'Gang' meaning 'powerful' and 'Deok', 'Virtue'.

368 **한무관 상징패**

Diameter 28.5

이교윤 관장이 창설한 한무관은 지도관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라 조선연무관 관장이었던 전상섭이 6.25전쟁 이후 행방불명되고 난 이후 이종우가 지도관을, 자신이 한무관을 개관한 것이라고 했다.

Hanmookwan Emblem Copper Plate

지름 28.5

This hall was established by Master Gyo-yoon Lee. According to Master Lee, Hanmoo-gwan did not branch out from Jidogwan. Instead, Jong-woo Lee opened Jidogwan and he opened Hanmoo-gwan after Sang-sup Jeon, the master of Joseon Yeonmugwan, went missing after the Korean War.

정도관 상징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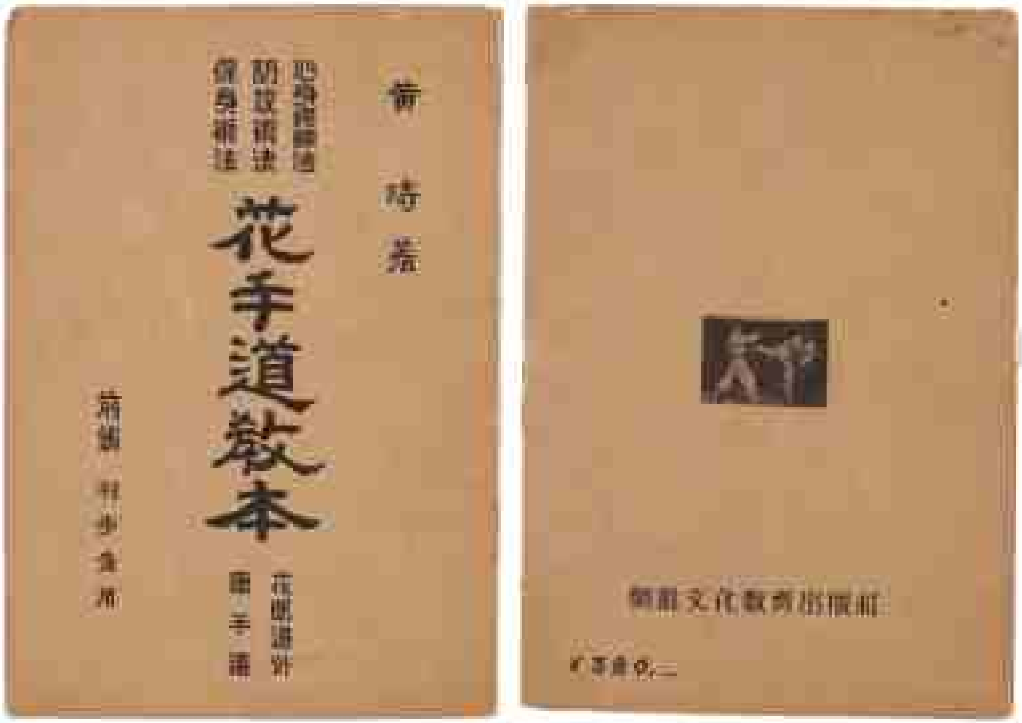
Diameter 27.3

정도관을 창설한 이용우는 당시 "도장을 개관하려고 하는데 정도 마땅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청도관에서 함께 수련한 엄운규가 청도관의 '청'자에서 획 하나를 빼면 어떠냐는 기발한 말 한마디에 생각해보니 '바른 길을 걷는다'는 뜻이 무도정신과 일치해 '정도관'이라고 명명했다"라고 했다.

Jungdokwan Emblem Copper Plate

지름 27.3

Yong-woo Lee, who founded Jeongdogwan, said, "I did not have any idea for the name of the hall. Then, Woon-gyu Eom, with whom I studied at Cheongdogwan, gave me a brilliant idea of switching a character from the 'Cheongdogwan' into 'Jeongdogwan,' and I thought it was great because 'Jeongdogwan' means 'Walking the Right Path' and it closely reflects the spirit of martial. hence the name 'Jeongdogwan.'"



화수도교본

1949 | 18×12.5 | 허인욱 기증

황기(黃琦, 1914-2002)가 저술한 교본으로 광복 이후 최초로 발행된 무예 관련 저서이다.

Hwasudo Instruction Book

Height 18, Width 12.5 | In-uk Heo

The first martial arts book published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and was written by Ki Hwang.

2 대한태권도협회

광복이후 모든 체육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체육단체로 인정받게 되는데, 태권도계는 1962년 6월 25일 통합된 경기단체로 '대한태수도협회'라는 이름으로 대한체육회 정식경기단체로 승인받게 되었다. 그 후 1965년 최홍희는 1월 15일 대한태수도협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대한태권도협회'와 개칭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After liberation from Japan, all sports organizations were approved as official sports organization of Korea by joining the 'Korean Sports &Olympic Committee', and taekwondo circles were approved as an official sports organization of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on June 25, 1962 by the title, 'Korean Taesudo Association'. Later, Hong-hee Choe was inaugurated as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n January 15, 1965 and changed the name to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which is still used today.

011. 대한태권도협회 페넌트
37.8×22.3, 총길이 38.2

대한태권도협회의 페넌트이다. 페넌트는 승리의 정표인 우승기를 말한다. 친선 교환경기 등에서 기념으로 서로 교환하는 삼각형 혹은 사각형의 소형 깃발로 주로 소속 또는 경기 명칭 등을 새겨 넣는다.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ennant
Height 37.8, Width 22.3, including stand: 38.2

This is the pennant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This is the pennant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This is the pennant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This is the pennant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002. 대한태권도협회 배지

Korea Taekwondo Association Badge

013.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21.5*22

50 Years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Height 21.5, Width 22

014. 대한태권도협회 상징패
지름 20.3 | 김용균

Korea Taekwondo Association Emblem Plaque
Diameter 27.5 | Gyeong-gyu Kim

016. 대한태권도협회 상징패
지름 27.5 | 이태욱

Korea Taekwondo Association Emblem Plaque
Diameter 27.5 | Lee Tae-uk

016 **대한태수도협회 단증**
1964 | 27.1×35.5 | 조증덕 기증

1964년 3월 5일 대한태수도협회에서 수여한 태수도 5단 단증이다.

Dan Certificate issued by Korea Taesudo Association
1964 / Height 27.1, Width 35.5 / Jeung-deuk Cho

Certificate of the Fifth Degree Dan in Taesudo issued by Korea Taesudo Association on March 5, 1964.

017 **대한태수도협회 트로피**

높이 30, 바닥 24 | 국민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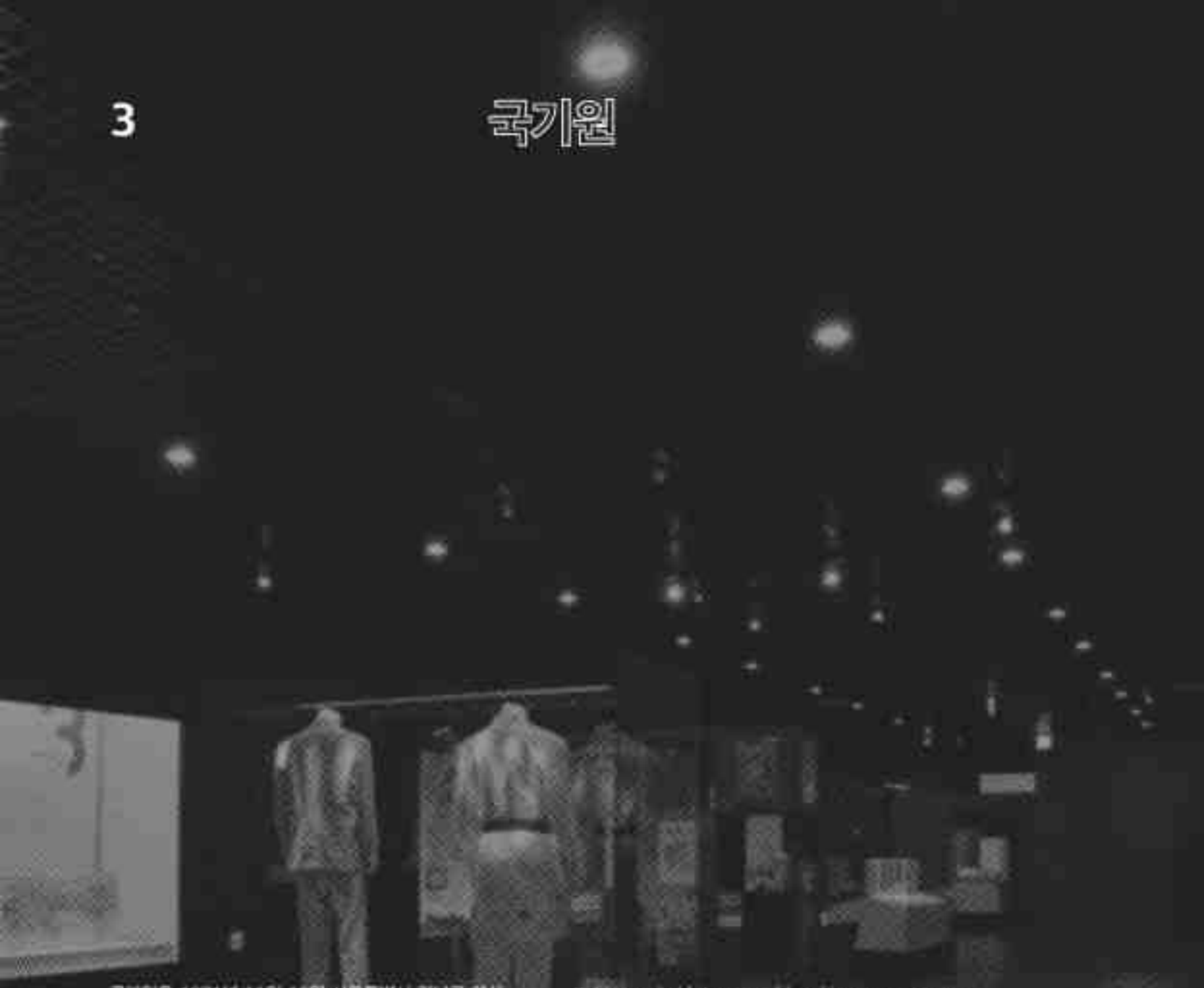
1963년 6월 16일 대한태수도협회에서 수여한 전국중학교단체대항전 우승 트로피이다.

Taekwondo Taesudo Association Trophy

Height 30, Width 24 | Northeast Gang Bible, on Loan

Trophy presented by Korea Taesudo Association to the winner of the National Middle School Team Competition on June 16, 1963

3 국기원



국기원은 197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공식을 가졌으며 대지 6,900m(2,087평),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1972년 11월 30일 준공되었다. 이로인해 1973년 12월 9일부터 단증의 발급은 대한태권도협회장 명의에서 국기원 원장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단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기원은 국내 태권도의 대중화와 태권도의 세계진출을 주된 사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세계태권도한마당은 국기원이 매년 주최하는 경연대회로 참가자들은 각종 격파, 시범, 창작품새 태권체조 등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준다. 무예정신의 발현과 태권뜨 기술 향상은 물론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2년 처음 개최된 후,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종합경연장이다.

Kukkiwon held its ground breaking ceremony in Yeoksam-dong, Gangnam-gu, Seoul on November 19, 1971. Construction of its three-story building with a basement floor was completed on a land area of 6,900㎡ on November 30, 1972. From then on, dan certificates were issued under the name of the president of Kukkiwon instead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since December 9, 1973 and same dan certificates are now being issued throughout the world. Since then, Kukkiwon has been focusing on the strengthening taekwondo within Korea, while spreading it across the world.

016 **국기원 뱃지**
지름 2 | 안해욱 기증

Kukkiwon Badge
Diameter 2 | Hae-uk An

015 **국기원 상징패**
지름 13 | 안해욱 기증

Kukkiwon Emblem Plaque
Diameter 13 | Hae-uk An

2부
태권도의
주도권

020 **태권도 단증**
1973 | 38.8×26.6 | 김경근 기증

1973년 11월 4일 국기원에서 발급한
태권도 초단(初段) 단증이다.

Taekwondo Dan Certificate
1973 | Height 38.8, Width 26.6 | Gyeong-geun Kim

This is the Taekwondo Dan Certificate issued to first degree dan (Juvenile Division) by Kidokwon on November 4, 1973.

022. 1992 세계태권도한마당 관련 자료
1992 | 문시철 소장

1992 World Taekwondo Hanmadang Trophy
1992 | Sin-cheol Kang

유물추가

021. **1992 세계태권도한마당 트로피**
1992 | 높이 32.5, 너비 19.5 | 강신철 소장

1992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한 제1회 세계태권도한마당 트로피이다.

1992 World Taekwondo Hanmadang Trophy
1992 | Height 32.5, Width 19.5 | Sin-cheol Kang

This is the trophy presented at the 1st World Taekwondo Hanmadang held by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1992.

023 **1993 세계태권도한마당 상패**

1993 | 지름 30 | 강신철 소장

1993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한 제2회 세계태권도한마당 트로피 대신 주물로 제작된 상패이다.

1993 World Taekwondo Hanmadang Winner's Plaque

1993 | Diameter 30 | Shin-cheol Kang

This is the plaque produced instead of trophy for the 2nd World Taekwondo Hanmadang held by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1993.

1994 세계태권도한마당 초대 발격파왕 트로피

1994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한 제1회 세계태권도한마당
초대 발격파왕 우승 트로피입니다.

1994 World Taekwondo Hallyuwadang Foot Breaking Contest Winner's Trophy

This is the trophy awarded to the winner of the 1st World Taekwondo Hallyuwadang Foot Breaking Contest, hosted by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1994.

025. **1995 세계태권도한마당 트로피**
1995 | 높이 39 × 폭 높이 27 | 김선철 소장

1995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한 제4회 세계태권도한마당 트로피이다. 본 트로피는 강선철사범의 발차기 동작을 모체로 제작되었으며, 1997년 제6회 세계태권도한마당까지 수여되었다.

1995 World Taekwondo Hanmadang Trophy
1995 | Height 27, Bottom 9×9 | Sn-cheol Kang

This is the trophy presented at the 4th World Taekwondo Hanmadang held by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1995. This trophy was produced based on Sn-cheol Kang's kicking motion and had been presented up to the 6th World Taekwondo Hanmadang held in 1997.

028 **1998 세계태권도한마당 트로피**

[illegible]

1998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한 개최된 제7회 세계태권도한마당 트로피이다.

1998 World Taekwondo Hanmadang Trophy

[illegible]

This is the trophy presented at the 7th World Taekwondo Hanmadang held by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1998.

4 세계태권도연맹

1972년 11월 30일 국기원 준공식·기념식사에서 김운용 국기원 원장은 "해외사범을 비롯한 세계전역의 태권도인들을 초청해 명실상부한 세계선수권대회를 내년 5월에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다음날인 1973년 5월 28일 국기원에서 태권도 세계화의 중심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하는 총회를 가졌다. 세계태권도연맹의 결성 이후 단기간에 회원국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각 대륙별 태권도연맹이 강화되면서 태권도의 질적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즉, 태권도 세계화의 첫 시작, 그 중심에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의 큰 활약이 있었지만, 세계태권도연맹의 창설로 태권도는 단기간에 세계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었다.

At the congratulatory address for the completion ceremony of Kukkiwon on November 30, 1972, president Woon-yong Kim promised to "hold a truly international championship contest by inviting all taekwondo people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structors overseas next May." A day after the fir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was held successfully, on May 28, 1973, he held at Kukkiwon a general assembl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a central organization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aekwondo. The number of member countries increased rapid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and taekwondo organizations were able to grow immensely alongside the intensification of taekwondo unions in each continent. In other words,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d Kukkiwon played a huge role in touching of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aekwondo, but it was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that enabled expedient internationalization of taekwondo.

027 세계태권도연맹 상징패
지름 13 | 안세욱 作

WTF Emblem Plaque
Diameter 13 | Ahn-uk An

038. 세계태권도연맹(WTF) 배지
높이 2, 너비 2.2 | 우경명 기증
Badge of World Taekwondo federation
Height 2, Width 2.2 | Kyung-myung Woo

039. 세계태권도연맹(WTF) 배지
지름 3 | 전북대 기증
Badge of World Taekwondo federation
Diameter 3 | Hall of Art

020 **제1회 세계태권도연맹 심판원 교육참가증서**

1974 | 26.7×39.7 | 서명기 기증

Certificate of Participation in the 1st World Taekwondo Federation Referee Training

1974 | Height 26.7, Width 39.7 | Myeong-gi Suh

5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인프라 구축의 첫 시작점인 태권도원 조성사업은 1996년 '태권도성지 건립추진위원회'가 창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후 2003년 태권도공원사업을 '관광정책 18대 과제'에 반영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04년 12월 전북 무주군을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로 최종 확정지었다. 2005년에는 태권도공원 조성과 운영의 주체인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을 창설해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과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 관련 기구와의 협력 구축에 힘을 기울였다. 2008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태권도진흥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종합적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와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이 조성되었다. 또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데 태권도진흥재단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he Taekwondowon development project, the start of the taekwondo infrastructure development, was accelerated after the foundation of the 'Taekwondo Sanctuary Development Promotion Committee' in 1996. Later, the basic plan was established after the Taekwondo Park Project in the '18 Tourism Policy Tasks' in 2003. In December 2004, Muju-gun, Jeollabuk-do was selected as the site for developing the Taekwondo Park. In 2005,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the principal agent for developing and operating taekwondo park and provided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taekwondo park and focused on a cooperative system with Jeollabuk-do, Muju-gun, and taekwondo related organizations, Kukkiwon,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With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established based on such policy, the government developed the world's one and only exclusive taekwondo center with the capacity for everything related with taekwondo from international competitions, experience, training, education, research, and exchange as a single Olympic event. Th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is also playing a pivotal role in sublimating Korea's proud cultural heritage, the spirit and value of taekwondo, into universal values for everyone around the world. On June 22, 2008,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Taekwondo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 Park.

031. 태권도진흥재단(TPF) 배지
높이 1, 너비 2

Badge of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Height 1, Width 2

032. 태권도진흥재단 배지
높이 1.5, 너비 2

태권도진흥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태권도원의 BI를 활용해 제작한 배지이다.

Badge of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Height 1.5, Width 2

This badge was produced based on the brand image of Taekwondowon, which is managed and operated by th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033 **2008 태권도의 날 기념우표첩**

2008 | 첩 23.5×28, 상자 25×29

Commemorative Stamp Album for Taekwondo Day

2008 | Booklet: Height 23.5, Width 28
Box: Height 25, Width 29

2009 태권도원 기공식 및 태권도의날 기념패

Commemorative Plaque for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aekwondowon and Taekwondo Day

035. 2009 태권도공원 기공식 및
태권도의 날 기념우표첩
첩 28×23.5, 봉투 29×25

Commemorative Stamp Album for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aekwondowon and Taekwondo Day
Booklet: Height 28, Width 23.5, Envelope: Height 29, Width 25

036 **태권도원 개원식 기념 접시**

2014 / 지름27

2014년 9월 4일 태권도원 개원을 기념하기 위해 김소산화가의 '무주호랑이'작품을 활용해 제작한 기념접시이다.

Commemorative Plaque for Opening Ceremony for Taekwondowon

2014 / Diameter 27

This is the commemorative ceramic produced based on 'Muju Tiger' by artist So-san Kim for the opening of Taekwondowon on September 4, 2014.

037. **태권도원 개원식 기념 우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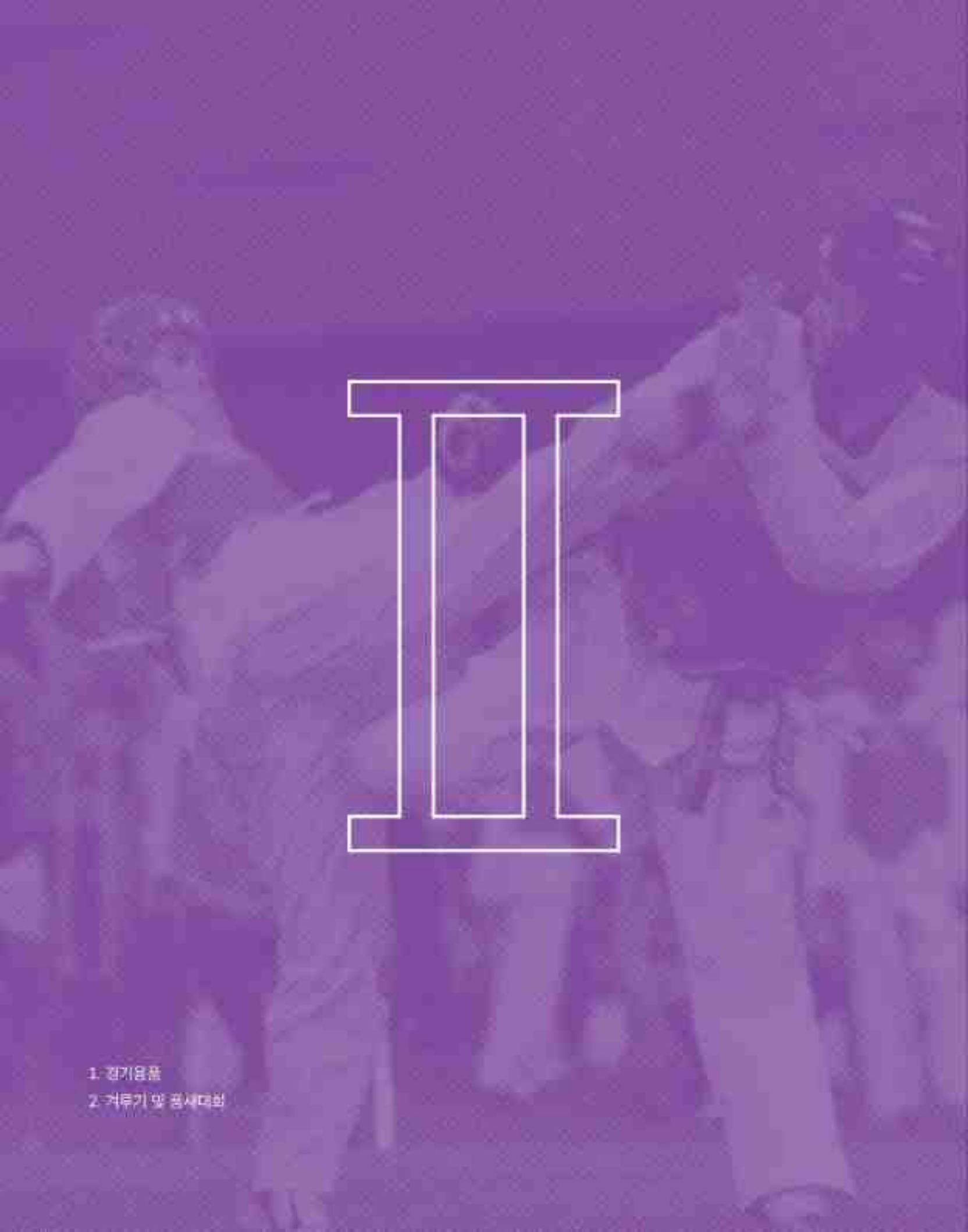
2014 | 접 71×185, 봉투 195×99

2014년 9월 4일 태권도원 개원을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제작한 기념우표첩이다. 태권도원의 대표적인 공간 및 캐릭터를 활용해 우표로 만들었다.

Commemorative Stamp Album for Opening of Taekwondowon

2014 | Booklet: Height 71, Width 185
Envelope: Height 195, Width 99

This is the commemorative stamp album produced by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for the opening of Taekwondowon on September 4, 2014. Stamps were produced by using the images of the places representing Taekwondowon and its characters.



1. 경기용품
2. 겨루기 및 품새대회

태권도의 경기화

태권도는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라는 네 가지 주요 수련 형식을 가지고있으며, 그 중 실전성이 높은 겨루기를 가장 먼저 경기화했다. 최초의 겨루기 경기대회는 1962년 제43회 전국체육대회로, 개최지인 경상북도와 당시 겨루기 경기 분야에서 우위에 있던 전라북도만을 참가시켜 시범종목으로 채택했다. 같은 해 11월 11일 '제1회 전국승단심사대회'를 개최하여 각 관별로 시행하던 승단심사의 단일화가 추진되고, 1963년 2월 23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대한태수도협회를 정식 경기단체로 승인함으로써 태권도의 본격적인 경기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겨루기 대회만으로 발전하는 태권도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품새, 격파, 태권체조 등의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품새 경기는 더욱 활성화되며 다양한 품새대회가 개최되었다. 2004년 개최된 제1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품새대회는 초등부에서 장년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 품새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Taekwondo has four main types of training, basic movement, poomsae(Forms), Kyorugi(Sparring), and Kyupa(Breaking). The first contest competition was the 43rd National Athletic Meet in 1962, and it was selected as a demonstration event by participating only in Gyeongsangbuk-do, the host city, and Jeollabuk-do, which was in the field of contest competition. On November 11th of the same year, '1st National All-Stars Judging Contest' was held, and the unification of the judging was carried out for each hall. On February 23, 1963, , The Taekwondo competition was full-scale.

However,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unbalanced development of Taekwondo, which has been developing since the 1990s, there have been various competitions such as Poomsae, Defeat, Taekwon Gymnastics. Especially in the 2000s, the poomsae competition was more active and various poomsae competitions were held. The first Korean Taekwondo Association Poomsae National Poomsae Convention held in 2004 was a turning point in the awareness of Poomsae Games by participating in various age groups from elementary to mature age.

1 경기용품

1960년대 이후 태권도의 경기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경기규칙과 더불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또한 발달했다. 태권도의 기술 중 겨루기는 상대편 선수에 신체득점부위를 강하게 타격하여 득점을 올리는 경기로써 선수의 보호장비에서 매트를 제외하고, 몸통보호구, 머리보호구, 샅보대, 팔 다리보호대 및 손 발등 보호대, 전자감응양말(전자호구 사용 시), 마우스피스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경기규칙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태권도 도복(겨루기)은 1978년 7월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공인 도복을 제정해 과거 저고리형 도복 상의를 브이(V)형 목깃 형태로 변경시키고, 이를 유급자 유품자, 유단자 흰으로 다시 구분하여 발표했다. 즉 도복 저고리 깃의 색상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흰 깃은 유급자용, 빨강과 검정에 깃은 유품자용, 검정색 깃은 유단자용이다.

As taekwondo competition developed actively from the 1960s, competition rules and protective gears for the safety of players also advanced. Gyeorugi (sparring) among taekwondo techniques hits the scoring points of the opponent to win points and the rule indicates that the mat has to be developed to protect contestants. Contestants are obligated to wear trunk guards, head guards, groin guards, arm and leg guards, hand and foot guards, and electrosensitive socks (when using electrosensitive protection), and mouthpiece. And Korea Taekwondo Association standardized the taekwondo uniform for sparring in July 1978 by changing the jeogori (jacket) type upper garment of the past into a new one with a V-neck collar and divided it into those for geup holders, for poom holders, and for dan holders. In other words, the uniform is differentiated by the color of the collar and the white collar is for geup holders, red-black collar is for poom holders, and black is for dan holders.

몸통보호구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시대별로 만들어진 몸통보호구로, 겨루기 대회에서 사용된다. 대나무를 활용해 만든 최초의 몸통보호구부터, 전자호구까지 살펴볼 수 있다.

Guard

These are the guards for the trunk area produced from the 1960's to the 2000's and used in sparring events. These include the first trunk guard made with bamboo strips and the electronic guard.

대나무 호구

Bamboo Guard

038 몸통보호구

1970년대 | 가슴둘레 75, 길이 74

Trunk Guard

1970 | Bust girth 75, length 74

041 **몸통보호구**

1980년대 | 가슴둘레 73.5, 길이 46 | 강신철

Trunk Guard

1980 | Bust girth 73.5, length 46 | Sin-cheol Kang

[illegible] **전자호구**

[illegible]

전자 호구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몸과 얼굴을 보호하는 호구에 전자센서 시스템을 장착한 호구를 뜻하고, 태권도 경기에서 상대방을 가격했을 때 센서가 이를 인식하고 점수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WTF에서 처음으로 전자호구를 적용해 치른 대회는 2009년 열린 제1회 WTF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2009 WTF월드컵태권도단체선수권대회, 제1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이며, 올림픽에서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사용되었다.

Electrosensitive Guard

2000 | Size girth 73.5, length 46 | Chang-ik Park

Electronic body and face from his opponent's attack is a perilous place to protect the electronic sensor system to a perilous place with the joss of death, when the price for each other in the Taekwondo competition.Sensor is to recognize that and be measuring the score. Wrf electronic were a perilous place for the first time in the first inning at the 2009 contest which had been doubled Taekwondo Championships, the 2009 World wrf wrf group taekwondo World Cup Championship, the 19th inning Usof in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Olympics, 2012 Olympics.

042 **낭심보호대**

❶ 허리둘레 65, 길이 23
❷ 허리둘레 81, 길이 33
❸ 허리둘레 45, 총 길이 49
최영길 기증

Groin Guard

❶ Waist 65, length 23
❷ Waist 81, length 33
❸ Waist 45, length 49
Young-gil Choi

043 **헤드기어**

높이 26, 너비 20(파랑), 높이 30, 너비 20(빨강) |
조정덕

Head Gear

Height 26, Width 20(파랑), Height 30, Width 20(빨강) |
Jeung-deok Cho

047. **팔보호대**
25×6 | 박춘욱 기증

Arm Guard
Height 25, Width 6 |
Chun-wook Park

046. **장갑**
25×6 | 박춘욱 기증

Gloves
25×6 | Chun-wook Park

044. **정강이보호대**
27×8.5 | 박춘욱 기증

Shin Guard
Height 27, Width 8.5 |
Chun-wook Park

045. **발등보호대**
24.5×9.5 | 박춘욱 기증

Top-of-foot Guard
Height 24.5, Width 9.5 |
Chun-wook Park

046 **제31회 리우올림픽 도복과 경기용품**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태권도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입은 도복과 보호구들이다.

Uniform and Equipment Used in Taekwondo Event for the 31st Olympic Games in Rio

These are Taekwondo uniform and equipment used during the 31st Olympic Games held in Rio in 2016.

049 **품새 도복**

상의 길이 74, 품 51, 큰 길이 31,
하의 허리둘레 48, 길이 91,
띠 길이 178 | Yoong-ae Suh

Uniform for Poomsae

상의 길이 74, 품 51, 큰 길이 31,
하의 허리둘레 48, 길이 91,
띠 길이 178 | Yoong-ae Suh

058. **겨루기 도복**

상의 길이 98, 품 69,
하의 허리둘레 62, 길이 118,
띠 길이 190 |
2008년 | 김성훈 기증

Uniform for Sparring

상의 길이 98, 품 69,
하의 허리둘레 62, 길이 118,
띠 길이 190 | Gyeong-Hun Kim

2 겨루기 및 품새대회

1960년대 태권도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선정되면서 겨루기를 중심으로 빠르게 경기화된다. 1970년대에는 초등부의 이차부 대회가 신설되면서 태권도는 대중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와같은 경기화와 대중화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는 국내 최초로 문교부의 인가를 얻어 태권도학과를 용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 설치하게 된다. 1990년대에는 겨루기 일색의 경기대회에서 벗어나 품새대회도 개최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 품새 경기는 더욱 활성화되어 2006년 제1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는 59개국에서 참가해 겨루기 부럽지 않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2년 WTF에서는 국제품새대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경기규칙을 제정해 점수 결과의 공정성 정확성을 높여 대회의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053. '91년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메달

1991 | 6×47.5 | 이승각 기증

1991년 개최된 전국우수선수권 선발대회 메달이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는 1963년 최초의 공식대회로 창설된 이후 2005년부터는 국가대표선발 예선전과 같해서 진행되고 있다.

Medal from National Selection Match for Excellent Male and Female Players in 1991

1991 | Diameter 6, length 47.5 | Seung-gak Lee

This is the medal presented at the National Selection Match for Excellent Players which was held in 1991. National Selection Match for Excellent Players is held every year and was established officially in 1963. It has been held concurrently with the National Team Selection Match from 2005

3부
태권도의
정기회

052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트로피**

1997 | 높이 30.4㎝ 1점 | 대한태권도협회 소장

1997년 개최된 제32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대학부 장려상 트로피이다. 1966년 창설되었으며, 2011년 부터는 국가대표 selection 선선전과 함께서 진행되고 있다.

Trophy from the 32nd KTA Flag National Taekwondo Group Competition

1997 | 높이 30.4㎝ 1점 | Korea Taekwondo Association

This is the trophy for Encouragement Prize presented to the college division at the 32nd President's Flag National Taekwondo Group Championship held in 1997. It was established in 1966 and has been held concurrently with the preliminaries of the National Team Selection Match from 2011

051. **2011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트로피**

2011 | 높이 34, 너비 21 | 대한태권도협회 소장

2011년 개최된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중등부 우수선수상 트로피이다.

Trophy for National Competitions for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held in 2011

2011 | 높이 34, 너비 21 | Korea Taekwondo Association

This is the trophy for Excellence Prize presented to the middle school male division at the National Competitions for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held in 2011.

054 **제7회 코리아오픈 국내대회 품새부문 은메달**
2012 | 7×52 | 김영우 소장

2012년 개최된 제7회 경주코리아오픈 국내대회 입상 메달이다. 본 대회에서 2위까지 입상자는 코리아오픈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Silver Medal for Poomsae Division in Domestic Competition at the 7th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2012 | Diameter 7, length 52 | Youngwoo Kim

This is the medal presented to winners in the domestic competition at the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in Gyeongju held in 2012. First and second place winners were qualified to ente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005 **제7회 코리아오픈 국제대회 품새부문 트로피**
2012 | 높이 37, 너비 8 | 김형우 소장
2012년 개최된 제7회
충주코리아오픈 국제대회
품새부문에서 김형우님수가
획득한 트로피이다.

Trophy for Poomsae Division in the 7th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2012 | Height 37, width 8 | Hyung-woo Kim
This is the trophy given to Hyung-woo Kim in the Poomsae division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t the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in Chungju held in 2012.

056. **제8회 코리아오픈 국내대회 품새부문 은메달**
2014 | 8×52 | 김영우 소장

2014년 개최된 제8회 경주코리아오픈 국내태권도대회 품새부문에서 김영우선수가 획득한 은메달이다.

Silver Medal for Poomsae Division in Domestic Competition at the 8th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Diameter 8, length 52 |
Yeong-woo Kim(Public collection)

This is the silver medal Yeong-u Kim won in the Poomsae division in the domestic competition at the 8th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in Gyeongju.
held in 2014

057. **제13회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품새부문 은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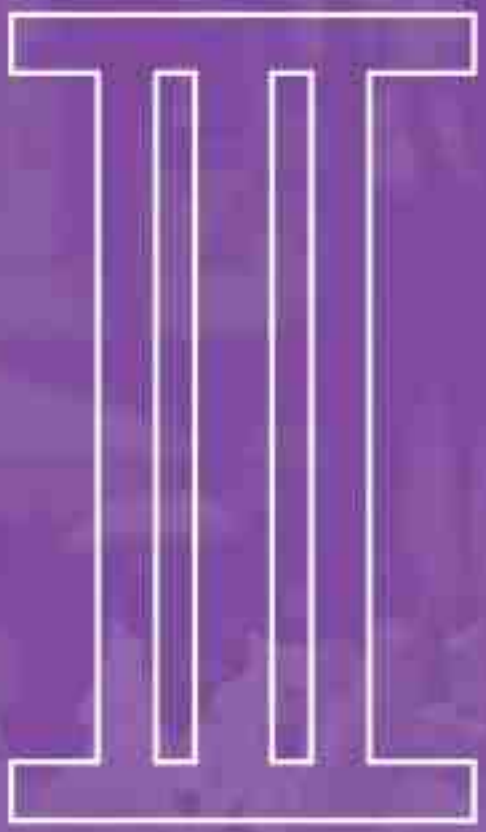
2014 | 6×46 | 김영우 소장

2014년 몽골에서 열린 제13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품새부문에서 김영우선수가 획득한 은메달이다.

Silver Medal for Poomsae division at the 13th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

2014 | Diameter 6, length 46 | Young-woo Kim(Rank: an Court)

This is the silver medal Young-u Kim won in the Poomsae division at the 13th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 held in Mongolia in 2014.



1.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3. 아시안게임
4. 올림픽

태권도의 세계화

대한민국의 무예였던 태권도는 최초로 최홍희를 단장으로 구성된 5명의 시범단이 1965년 10월 16일 출국해 서독(독일), 이탈리아, 터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태권도 지도 및 보급 활동을 펼친 이후 1973년 5월 25일에서 27일까지 진행된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다음날인 28일 대회에 참가한 19개국 대표가 모여 세계태권도연맹 창설을 통해 태권도의 세계화라는 기반을 마련하고, 1975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경기연맹연합회(GAISF) 총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정회원 가입은 태권도가 세계 스포츠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Taekwondo, the martial art of the Republic of Korea, first taught Taekwondo in Germany, Italy, Turkey, Malaysia, Singapore and other countries after departing on October 16, 1965.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The following day, representatives from 19 nations participated in the tournament on the 28th, gathering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to establish the basis of globalization of Taekwondo. In October 1975, at the GAISF General Assembly held in Montreal, Canada, is an opportunity for Taekwondo to become a world sport.

1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제1회 대회는 1973년 5월 25일-27일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국기원(國技院)에서 16개국 161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치러졌다. 그리고 이때 대회에 참가한 16개국 35명의 대표들이 모여 1973년 5월 28일에는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하였다. 이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데 1985년 제7회 여자부터는 남자대회만 치러오다가, 1987년 제8회 대회부터 여자선수들이 참가함으로써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대회가 함께 열리게 되었다. 또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9회 대회에서는 여자부에서 중국의 우승, 2011년 대한민국 경주시에서 열린 제20회 대회 2015년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열린 제22회 대회에서는 남자부의 경우 이란이 2번 모두 우승하며, 세계 각국 선수들의 태권도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lectro-sensitive guard refers to the guards designed to protect the trunk and face against the opponent's attack and are equipped with an electric sensor system. At a Taekwondo competition, the electrosensitive guard senses hits from the opponent to record scores.
This is divided into trunk guard and head guard. It was the 1st WTF World Para-Taekwondo Championships held in Baku, Azerbaijan on June 10, 2009 and the WTF World Cup Taekwondo Team Championship held from June 11 through 14, 2009 that the WTF introduced the electro-sensitive guard for the first time. It was first introduced to the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held in Copenhagen, Denmark from October 14 through 18, 2009 and for the Olympic Games, it was first used during the London 2012 Olympic Games.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01. 제1회 포스터
1973.0
02. 제2회 포스터
1975.0
03. 제3회 포스터
1975.08.28-31
04. 제4회 포스터
1973.05.25-27
05. 제5회 포스터
1975.08.28-31
06. 제6회 포스터
1975.08.28-31
07. 제7회 포스터
1979.05.25-27
08. 제8회 포스터
1975.08.28-31
09. 제9회 포스터
1975.08.28-31
10. 제10회 포스터
1979.05.25-27
11. 제23회 포스터
1975.08.29-31

원고요청

057. **제10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트로피**
1991 | 높이 25, 너비 15 | 대한태권도협회 소장

1991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0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트로피이다.

The 10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Trophy
1991 | Height 25, Width 15 |
Korea Taekwondo Association/Public on Loan

This is the trophy from the 10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held in Athens, Greece in 1991.

058.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트로피**
1993 | 높이 20, 너비 15 | 대한태권도협회 소장

1993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트로피이다. 1987년 제8회 대회부터 여자부가 신설되어, 여자부로는 제4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이다.

The 11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Trophy
1993 | Height 20, Width 15 |
Korea Taekwondo Association(Relic on Loan)

This is the trophy from the 11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held in New York, America in 1993. The women's division was established from the 8th championship in 1987, and this was the fourth championship that included the women's division.

058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트로피**
1993 | 높이 54, 너비 21 | 대한태권도협회 소장

1993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트로피이다.

The 11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Trophy
1993 | Height 54, Width 21 |
Korea Taekwondo Association(Reliic on Loan)

This is the trophy from the 11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held in New York, America in 1993.

068. **제13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트로피**

1997 | 높이 30, 너비 43 | 대한태권도협회 소장

1997년 중국 홍콩에서 열린 제1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트로피이다.

The 13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Trophy

1997 | Height 30, Width 43 |
Korea Taekwondo Association(KTA) on Loan

This is the trophy from the 13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held in Hong Kong, China in 1997.

001 **제2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메달**

2013 / 지름 7, 끈 길이 50 / 김태훈 소장

2013년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제2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54kg급에서 김태훈 선수가 획득한 금메달이다.

The 21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medal

2013 | Diameter 7, length 50 | Tae-hun Kim(Relic on Loan)

This is the gold medal Tae-hun Kim won in the -54kg division at the 21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held in Puebla, Mexico in 2013.

062. **제2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메달**

2015 | 지름 10, 두께 0.7 | 김태훈 소장

2015년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제2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54kg급에서 김태훈 선수가 획득한 금메달이다.

The 22n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medal

2015 | Diameter 10, length 67 | Tae-hun Kim(Public on Loan)

This is the gold medal Tae-hun Kim won in the -54kg division at the 22n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held in Chelyabinsk, Russia in 2015

실제 사이즈와 다른데 혹시 너무 커서 줄이신건가요?

2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

품새는 자신(自身)과의 싸움이며, 수련할수록 높은 경지에 다다르며, 태권도의 가장 중요한 수련이기 때문에 겨루기만큼이나 중요하게 수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6일~9일까지 개최된 제1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통해 품새의 중요성과 태권도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달리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매년 개최되었지만, 2015년 베트남의 국내사정으로 개최가 취소되어 2014년 9회 대회부터는 격년으로 치르게 되었다. 제1회 대회부터 2016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0회 대회까지 태권도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은 10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겨루기와 마찬가지로 품새대회 또한 세계 각국 선수들의 기량이 급성장하여 실력평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겨루기와 같이 품새 또한 빠르게 대중화 세계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Poomsae is a battle with one's self and is given as much importance as sparring because practicing poomsae leads to a higher level of martial arts and is the most important form of training in taekwondo. Hence, the 1st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held from September 6 to 9 in 2006 showed the importance and diversity of taekwondo. Unlike the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which is held biannually, the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was held every year until Vietnam cancelled the championships for 2015 due to domestic circumstances and was thus held every other year since the 9th championships in 2014. From the 1st championships to the 10th championships held in Lima, Korea, the birthplace of taekwondo, won the championships ten consecutive times. However, the skill levels of players around the world have improved rapidly in poomsae championships as they have in sparring competitions and their skills have leveled out. This is an example showing that poomsae has quickly popularized and globalized like sparring.

063 **제1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메달**

2006 | 지름 6.8, 길이 57.6 | 서영애 기증

성별과 몸무게를 기준으로 체급을 결정하는 겨루기 대회와 달리 품새대회는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나뉜다. 제1회 대회부터 2016년 제10회 대회까지 10회 연속 메달을 획득한 서영애사범의 메달들이다.

The 1st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medal

2006 | Diameter 6.8, length 57.6 | Young-ae Suh

Unlike sparring competitions that determine class based on gender and weight, poomsae competitions divide competition by gender and age. These are the medals of Instructor Young-Ae Suh who participated in the 1st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through the 10th championship in 2016. He won medals in 10 consecutive competitions.

064. **제2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메달**
2007 | 지름 6.8, 길이 54.4 | 서영석 기증

The 2nd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medal
2007 | Diameter 6.8, length 54.4 | Young-ae Suh

065. 제3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메달

2008 | 지름 6.4, 길이 51.4 | 서영석 기증

The 3rd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medal

2008 | Diameter 6.4, length 51.4 | Young-seok Suh

006 **제4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메달**
2009 | 지름 6.6, 길이 50.3 | 서영애 기증

The 4th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medal
2009 | Diameter 6.6, length 50.3 | Young-ae Suh

067. 제5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메달
2010 | 지름 7.4, 길이 52.5 | 서영석 기증

The 5th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medal
2010 | Diameter 7.4, length 52.5 | Young-seok Suh

058 **제6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메달**

2011 | 지름 5.8, 길이 46.3 | 이진환 소장

The 6th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medal

2011 | Diameter 5.8, length 46.3 |

099. **제6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트로피**

2011 | 높이 43, 너비 29 | (사)대한태권도협회 소장

20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의 트로피이다. 개인에게는 메달을 수여하지만, 단체에게는 트로피를 수여하기도 했다.

The 6th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Trophy

2011 | Height 43, Width 29 | Korea Taekwondo Association (Kukkiwon Loan)

This is the trophy of the 11th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held in Vladivostok, Russia in 2011. Medals were given to individuals and trophies, to teams.

070 제7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메달
2012 | 지름 6.3, 길이 52.4 | 서영애 기증

The 7th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medal
2012 | Diameter 6.3, length 52.4 | Young-ae Suh

앞
태권도의
세계화

재촬영 요청
긴 사진 압축

073 제8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메달
2013 | 지름 7.5, 길이 40.6 / 서경석 기증

The 8th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medal
2013 | Diameter 7.5, length 40.6 | Yeong-se Suh

072 제9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메달
2014 | 지름 7, 길이 50 | 서영석 기증

The 9th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medal
2014. Diameter 7, length 50 | Young-seo Suh

073. 제10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메달

2016 | 지름 8 [illegible] 48 | 이진환 소장

2016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0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개인전 50세 이하부에서 이진환 관장이 획득한 메달이다.

The 10th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 medal

Du... 48 | Jin-hwan Lee(Relic on Loan)

영문 번역 요청

아시안게임

우리나라는 6.25로 인해 1회 대회는 불참했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히 참가해 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서울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36개국 중 27개국 4,839명이 참가한 가운데 1986년 9월 20일~10월 5일까지 16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임원과 선수 638명으로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중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었으며, 태권도는 8체급 중 7체급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당시 개막 행사로 '마스게임'이라는 주제로 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어린이 201명과 공수특전단의 비호태권도단원 800명이 태권도 마스게임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까지 유치했으며, 2016년 9월 26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부터는 태권도 종목 가운데 품새를 추가하는 방안이 최종 승인되면서 태권도는 또 한번 세계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Although Korea did not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for one time due to 6.25, Taekwondo was selected as the official event in the 10th Asian Games in 1986. Seoul Asian Games were held from September 20th to October 5th, 1986 for 16 days, with 4,839 participants from 27 countries among the 36 countries of the Asian Olympic Council (= OCA). The Korean athletes team was the largest athlete in the contest of the Asian Games with 638 officers and athletes and Taekwondo won a gold medal in seven of eight weight classes. At the opening ceremony, 201 children of Myeongdong Elementary School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and 800 members of Biho Taekwondo Unit of Taekwondo Taekwondo Team of Taekwondo Masters showed the Taekwondo Mas game. Since then, Korea has hosted the 14th Busan Asian Games in 2002 and the 17th Incheon Asian Games in 2014, and plans to add Poomsae among the Taekwondo events from the Asian Games in 2018 at the Asian Olympic Games Conference on September 26, 2016 With the final approval, Taekwondo has once again provided a chance to reach out to the world.

874.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 기념 배지
1986 | 높이 30.5, 너비 40.5 | 아크릴

Taekwondo Uniform Worn during Opening Ceremony of the 14th Asian Games in Busan
1986 | 높이 30.5, 너비 40.5 | 아크릴

도복 상의, 조끼

도복 하의

도복 끈

도복 허리띠

075.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개막식 공연 도복**

2002 / 상의 길이 84, 품 62, 소매 길이 82.5, 하의 길이 102, 허리둘레 57, 길이 112, 띠 길이 336, 헤어밴드 너비 8.5, 길이 136 | 이봉덕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의 개막식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착용했던 태권도 도복이다. 이는 패션디자이너 故 앙드레 김이 태권도 도복을 재해석해 제작한 것입니다.

Taekwondo Uniform Worn during Opening Ceremony of the 14th Asian Games in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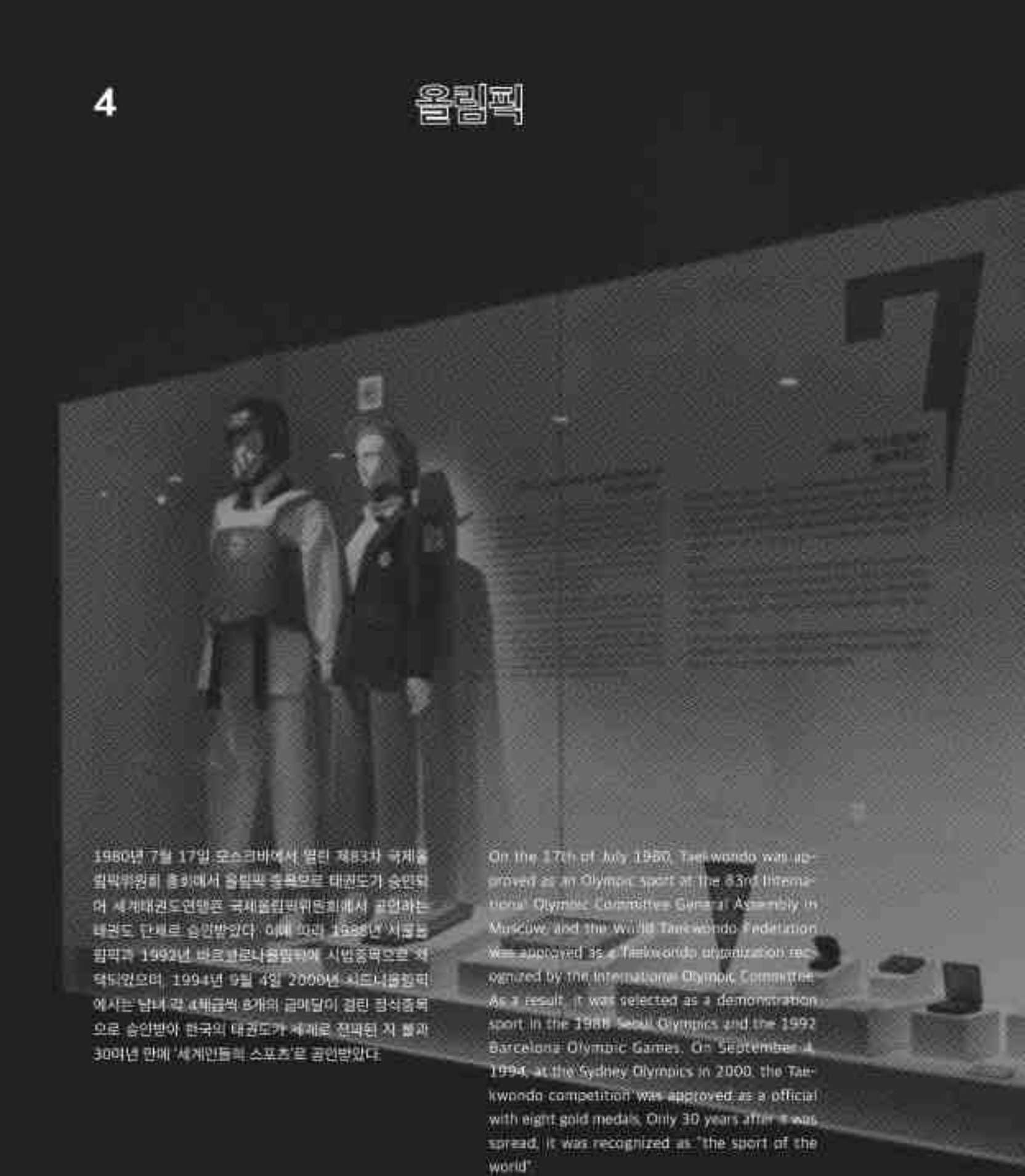
Joong-dook Lee

This is the Taekwondo uniform worn by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14th Asian Games held in Busan. This was the reinterpretation of the Taekwondo uniform by the late fashion designer Andre Kim.

076.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기념 배지
2002 | 높이 8.5, 너비 24 | 여대순

Taekwondo Uniform Worn during Opening Ceremony of the 14th Asian Games in Busan
2002 | 높이 8.5, 너비 24 | 여대순

4 올림픽



1980년 7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83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태권도가 승인되어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공인하는 태권도 단체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9월 4일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남녀 각 4체급씩 8개의 금메달이 걸린 정식종목으로 승인받아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로 전파된 지 불과 30여년 만에 '세계인들의 스포츠'로 공인받았다.

On the 17th of July 1980, Taekwondo was approved as an Olympic Sport at the 83rd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General Assembly in Moscow and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as approved as a Taekwondo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s a result, it was selected as a demonstration sport in the 1988 Seoul Olympics and the 1992 Barcelona Olympic Games. On September 4, 1994, at the Sydney Olympics in 2000, the Taekwondo competition was approved as a official with eight gold medals. Only 30 years after it was spread, it was recognized as "the sport of the world"

제24회 서울올림픽 각종 기념품

1988년 서울올림픽,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기념품들이다. 특히 서울올림픽은 공식 마스코트였던 호돌이와 올림픽 마크인 오륜마크를 활용해 기념품을 제작했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의 경우에는 태권도를 활용해 배지를 제작했다.

The 24th Olympic Games in Seoul Commemorative Badge

영문게재 요청

... the souvenir from the 24th Olympic ... in Seoul in 1988. They are the mascot of ... Olympic, Hodori, commemorative badge, ... pennant showing the Olympic flag.

077. **제24회 서울올림픽 기념뱃지**

1988 | 높이 2.2, 너비 3 | 김영재 기증

The 24th Olympic Games in Seoul Commemorative Badge

1988 | Height 2.2, Width 3 | Yeong-jae Kim

078. **제24회 서울올림픽 기념메달**
1988 | 지름 6 | 안해욱 기증

The 24th Olympic Games in Seoul Commemorative Medal
1988 | Diameter 6 | Hae-uk An

079 **제24회서울올림픽 페넌트**
1988 | 높이 38, 너비 26 | 김영직 기증

The 24th Olympic Games in Seoul Souvenir
1988 | Height 38, Width 26 | Young-jak Kim

090. 제27회 시드니올림픽 기념 배지
2000 | 높이 24.5, 지름 23

The 24th Olympic Games in Seoul
Commemorative Medal
2000 | Height 24.5, Width 23

081. 제29회 베이징올림픽 기념 배지

2008 | 높이 9.2 지름 19.8 | 이덕산 기증

The 24th Olympic Games in Seoul Commemorative Medal

2008 | Height 9.2 Width 19.8 | 이덕산 기증

082. **제24회 서울올림픽 금메달**
1988 | 지름 6, 길이 50 | 하태경 기증

태권도가 시범종목으로 채택 선정된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남자 플라이급에서
하태경선수가 획득한 금메달이다.

Gold Medal for Taekwondo Event, the 24th Olympic Games in Seoul
1988 | Diameter 6, length 50 | Tae-gyeong Ha

This is the gold medal Tae-gyeong Ha won in the men's flyweight division at the 24th Olympic Games held in Seoul in 1988 when Taekwondo was first selected as the demonstration sport.

3부
태권도의
세계화

083.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

1992 | 지름 7 길이 55 | 하대영 기증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 남자 웰터급에서 하대영선수가 획득한 금메달이다.

Gold Medal, the 25th Olympic Games in Barcelona

1992 | Diameter 7 length 55 | Tae-gyeong Ha

This is the gold medal Tae-gyeong Ha won in the men's welterweight division at the 25th Olympic Games held in Barcelona.

094. **제27회 시드니올림픽 금메달**
2000 | 지름 7, 두께 4.9 | 김경훈 기증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00년 제27회 시드니올림픽남자 +80kg급에서 김경훈선수가 획득한 금메달이다.

Gold Medal for Taekwondo Event, the 27th Olympic Games in Sydney
2000 | Diameter 7, height 4.9 | Gyeong-hun Kim

This is the gold medal Gyeong-hun Kim won in the men's +80kg division at the 27th Olympic Games held in Sydney in 2000 when Taekwondo was accepted as the official sport.

SYDNEY 2000
adidas
114
115

005. **제29회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08 | 지름 7, 길이 59 | 차동민 소장

2008년 제29회 베이징올림픽 남자 +80Kg급에서 차동민선수가 획득한 금메달이다.

Gold Medal for Taekwondo Event, the 29th Olympic Games in Beijing
2008 | Diameter 7, length 59 | Dong-min Cha(Refer to Loan)

This is the gold medal Dong-min Cha won in the men's +80kg division at the 29th Olympic Games held in Beijing in 2008.

086. **제30회 런던올림픽 은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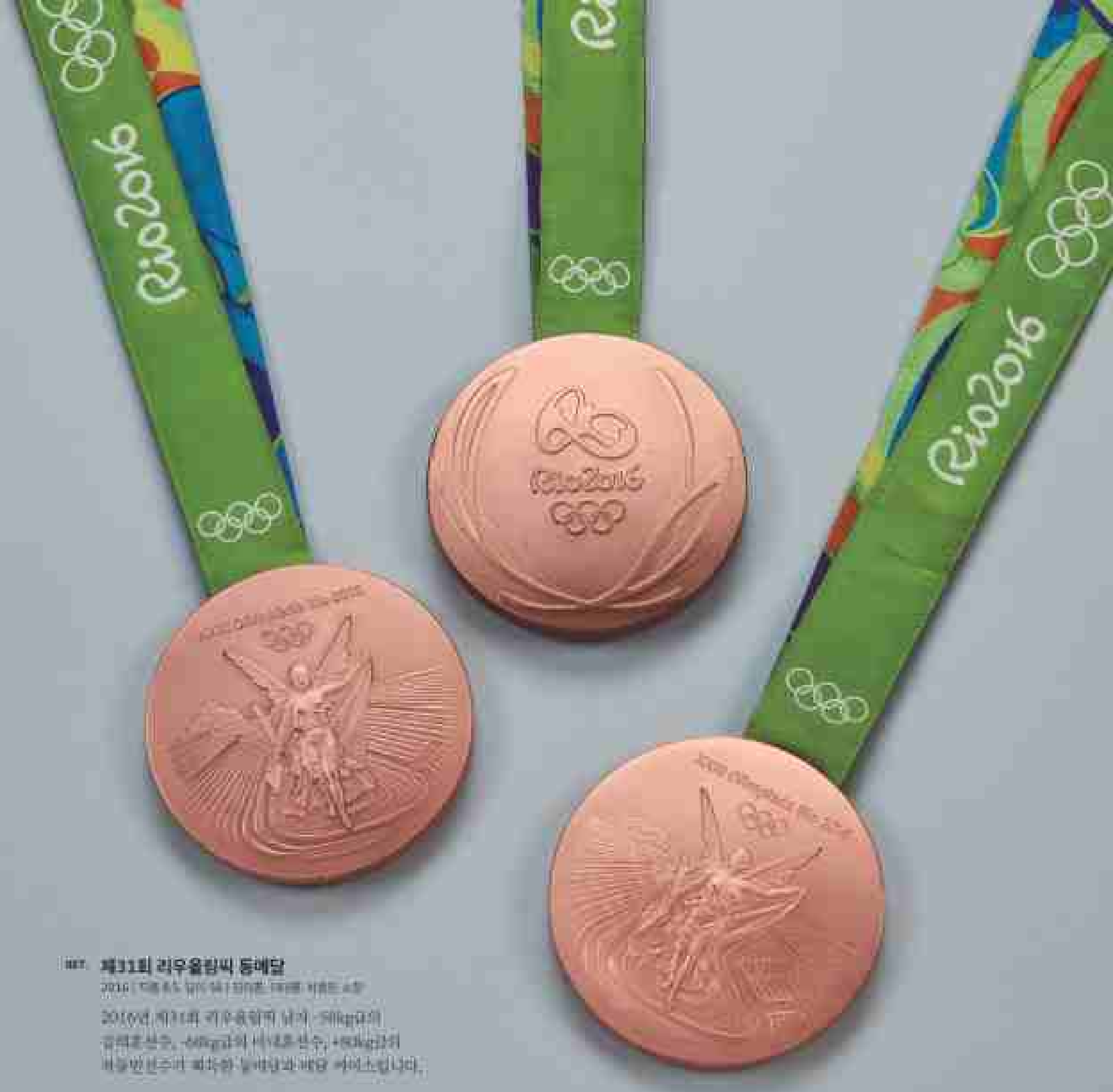
2012 | 지름 8.5, 길이 55 | 이대훈 소장

2004년 제30회 런던올림픽 남자 -58kg급에서 이대훈선수가 획득한 은메달이다.

Silver Medal for Taekwondo Event, the 30th Olympic Games in London

2012 | Diameter 8.5, length 55 |
Dae-hun Lee(Rok) on Loan

This is the silver medal Dae-hun Lee won in the men's -58kg division at the 30th Olympic Games held in London in 2012.



[illegible] **제31회 리우올림픽 동메달**

2016 | [illegible]

2016년 제31회 리우올림픽 남자 -58kg급의 김태훈 선수, -68kg급의 이대훈 선수, +80kg급의 차동민 선수가 획득한 동메달과 메달 케이스입니다.

Bronze Medal for Taekwondo Event, the 31st Olympic Games in Rio

2016 | [illegible]

Dong-min Cha, Tae-hun Kim, Dae-hoon Lee [illegible]

These are the Bronze Medals Tae-hun Kim in the -58kg division, Dae-hoon Lee in the -68kg division, and Dong-min Cha in the +80kg division won and their cases at the 31st Olympic Games held in Rio in 2016.

Rio2016

IV

논고

태권도의 세계화와 경기화

송형석 (계원대학교 태권도학과)
양진방 (용인대학교 태권도경기지도학과)
우도 외니히 (영산대학교 태권도학과)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Though the Rise of Sports Taekwondo

Hyeong-seok Song
(Kaewyung University [redacted])
Jin-bang Yang
(Yong In University [redacted])
Udo Moenig
(Youngsan University [redacted])

태권도의 세계화와 경기화

송형석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양진방 (용인대학교 태권도경기지도학과)
우도 외나히 (영산대학교 태권도학과)

1. 태권도의 세계화

태권도는 세계화에 성공한 한국의 무예이자 문화상품이다. 2017년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F)에 가입된 회원 국가는 공식적으로 208개국이다. 이 숫자는 193개국에 불과한 유엔가입 국가 수보다 많다. 태권도가 보급되어 있지만 아직 WTF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태권도는 4년마다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올림픽경기 정식 종목이기도 하다. 28개 올림픽 정식 종목 가운데 동양에서 유래한 종목은 유도와 태권도뿐이다. 한편 전 세계 태권도수련자는 약 1억 명 정도로 추산되며, 전 세계 유단자는 96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 규모의 태권도대회는 겨루기대회만 659개이다. 품새 대회와 각 국가 및 지역 대회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상의 자료들은 태권도가 세계화에 성공한 무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태권도가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로 진출한 태권도지도자 개개인이 태권도 보급에 헌신적이었고,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WTF, 태권도진흥재단 같은 태권도 관련 조직이 이 일에 앞장서 왔으며, 한국 정부가 개인 및 조직의 태권도 세계화 노력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권도가 지닌 동양무예로서의 정신적 깊이와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의 독특성, 다른 문화현상들과 화합과 융합을 거부하지 않는 개방적 태도 등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은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아직 태권도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확립되지 못한 채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던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시기이고, 둘째 단계는 세계인의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 방적 확산에 주력했던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시기이며, 셋째 단계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올림픽 영구종목의 지위를 획득하고 질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온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하에서는 각 시기별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1차 세계화

태권도가 처음으로 세계로 진출한 때는 1950년대 초반이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했던 이들이 유학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 특히 미국에 진출하여 현지인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했다. 따라서 당시의 태권도 해외보급은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직적 차원의 세계화는 1950년대 말부터 진행되었다. 1958년 월남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결성된 국군태권도시범단이

월남과 대만 등지를 순회하면서 태권도를 소개했다. 한편 1964년 월남전 발발 후 미국의 주도로 결성된 다국적군으로 참전했던 세계 여러 나라 군인들은 당시 한국군과 월남군을 지도하고 있던 태권도교관단의 시범을 관람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들은 군복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 자신의 국가에 한인 태권도시범팀을 초청했으며, 이를 계기로 다수의 태권도지도자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홍희는 말레이지아대사 부임을 계기로 동남아지역에 태권도를 보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1966년 싱의 진흥 시범팀을 중심으로 국제태권도연맹(이하 ITF)을 결성했으며, 1968년 ITF의 주도하에 홍콩에서 제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진행된 세계화 노력으로 태권도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 세계 여러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지만 추구하는 철학, 기술, 수련방법, 경기 방식과 규칙 등에서 이미 진출해 있던 일본 가라테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당시의 태권도에는 엄숙주의와 일격필살로 대변되는 일본 무도의 정신이 깊게 반영되어 있었다. 홍콩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경기방식과 규칙도 일본 가라테의 그것과 대동소이했다. 당시 해외에서 활동하던 태권도지도자들이 도장간판을 통해 나타났던 명칭도 Taekwondo가 아닌 Karate 혹은 Korean Karate였다.

2) 제2차 세계화

1970년대 초 ITF와 대한태권도협회는 해외수련생의 단증발급 권한 및 겨루기경기규칙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여러 차례의 회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타협안을 찾지 못한 대한태권도협회는 결국 ITF와 별도로 세계화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1971년 김운용이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직을 맡게 되고, 1972년 초 ITF총재 최홍희가 캐나다로 망명하면서 국내 태권도계는 새롭게 재편성된다.

태권도계의 수장을 맡은 김운용은 태권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개의 파벌로 나뉘어져 있는 태권도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하며, 태권도를 국기화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기원의 건립을 서둘러야하며,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인의 스포츠로 만들어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태권도 발전계획 구상을 바로 실천에 옮겼다. 그는 1972년 말 서울 강남에 중앙도장을 건립하였으며, 당시 태릉링이었던 박정희로부터 "국기태권도"휘호를 받아 중앙도장을 국기원으로 개명하였고, 이를 기회 삼아 난립하던 관들을 통합시켰다. 그 후 김운용은 태권도를 빠르게 세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1970년대 들어 김운용의 대한태권도협회가 추진한

태권도의 세계화전략은 무도가 아닌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즉 경기태권도를 중심으로 세계 태권도계를 재편성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었다. 1960년대 초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경기태권도가 1970년대에 이르러 태권도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태권도가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다. 한국 태권도가 일본 가라테와 다른 무예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경기단체를 통해 각국 태권도인들이 조직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력 속에 대한태권도협회는 1973년 5월 25일 서울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아직 WTF가 정식으로 창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대회의 경기규칙과 참가자격은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는 스포츠경기로서의 태권도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차후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회가 열리고 나서 닷새 후인 5월 30일 서울에서 WTF가 결성됨으로써 본격적인 태권도 세계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태권도는 WTF의 주도하에 1975년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하는데 성공했으며, 1976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78년 아시아태권도연맹과 아프리카태권도연맹이 창설되었으며, 1980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83차 IOC총회에서 올림픽종목으로 승인되었고, 1983년 카라카스에서 열린 범아메리카 스포츠기구 20차 회의에서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있는 대회인 범-아메리카 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1984년 개최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서 86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85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90차 IOC총회에서 88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1986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87년 동남아시아게임과 남태평양게임에 각각 공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94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03차 IOC총회에서 마침내 만장일치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한국어는 영어, 불어, 일본어에 이어 네 번째로 올림픽 공식언어가 되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태권도는 국제 사회에서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2차 세계화 과정에서 역사적 뿌리를 한국 전통 무예에 두고, 기술적 중심을 차기에 두며, 양식에 있어서 스포츠경기를 표방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스포츠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으며, 세계인의 스포츠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3) 3차 세계화

1990년대 초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태권도의 세계화과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첫째 특징은 올림픽 정식종목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있으며, 둘째 특징은 경계과정의 다양화 및 복합화와 관련이 있다.

올림픽정식종목의 지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경기를 치른 이후 태권도경기는 관람스포츠로서 흥미성이 부족하며, 판정 시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받았다. 따라서 태권도계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TF는 태권도경기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격전과 극적 경합이 가능하도록 차등점수제를 확대 적용하고, 과도한 방어 및 부진한 공격에 벌점을 강화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단조로운 흑백 계열의 태권도복을 컬러풀하게 만듦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해변에서 파격적인 복장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비치태권도대회를 구상하고 실현하였으며, 겨루기종목에만 국한되어 있던 태권도경기를 품새, 시범, 격파 등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개인전 위주로 진행되어 온 단조로운 겨루기경기에 흥미를 불어 넣기 위해 5인 혹은 3인 단체전을 개최, 실행하고 있다.

WTF는 또한 잦은 판정 시비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경기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해법으로 비디오판독과 전자호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새로운 판정시스템은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경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 올림픽경기에서 판정시비가 크게 줄었으나 얼굴득점에 대한 판정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WTF는 전자헤드기어를 도입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검증을 거친 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사용했으며, 그 결과 2016년 리우올림픽경기에서는 판정시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태권도의 정식종목 지위를 위협했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태권도의 세계화과정에서 이목을 끄는 또 다른 특징은 태권도지도자 해외진출 경로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태권도사범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대학 태권도학과 해외파견 프로그램이나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 사업의 일환인 해외태권도지도자 파견프로그램, 국기원 해외사범 파견 프로그램,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 파견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태권도가 3차 세계화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융합과 복합 현상의 가속화이다. 태권도는 다른 문화현상들과의 융합에 소극적인 중국과 일본의 무예와 달리 적극적으로 다른

문화현상들과 결합을 시도해왔다. 그 결과 태권도는 풍부한 다양성을 갖춘 문화복합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음악, 무용, 에어로빅, 퀀투, 교육프로그램, 다이어트 프로그램, 스포츠, 마케팅프로그램, 연극과 뮤지컬 같은 공연예술 등의 요소들은 태권도가 갖춘 문화의 다양성 가운데 몇 가지 예이다. 태권도는 이와 같은 풍부한 다양성을 갖춤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손쉽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세계의 소비자들은 태권도를 통해 흥에 대한 욕구, 운동에 대한 욕구,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 인성교육에 대한 욕구, 통합적 정신성에 대한 욕구, 볼거리에 대한 욕구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태권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부단한 세계화 노력을 통해 세계인의 스포츠로서 굳건한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구성된 태권도수련은 세계인들에게 예(禮)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건강을 가치다움으로써 인간교육이나 생활체육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문화의 세기로 이야기되고 있는 21세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서 태권도가 세계사회의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무한히 열려있다.

2. 태권도의 경기화

1) 경기화의 배경

해방 이후 태권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예에서 스포츠경기로의 전환이다. 1960년대까지 화수도, 당수도, 공수도, 권법, 수박도, 태수도 등으로 불렸던 태권도는 현대화과정에서 경기화의 길을 선택했다. 태권도가 경기화하기 전에도 소박한 형태의 겨루기경기가 존재했었다. 6.25전쟁 전까지 1세대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겨루기경기는 급소 앞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종전 후 태권도계에서 1세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국내에서 수련한 2세대 지도자들이 태권도계의 주도권을 쥐면서 상대를 직접 타격하는 방식의 겨루기경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 태권도의 경기화에 대한 찬반논의가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최홍희, 황기 같은 1세대 지도자들이 경기화에 반대했던 반면에, 이종우를 비롯한 2세대 지도자들은 경기화를 적극 추진했다. 1세대 지도자들은 태권도가 경기화될 경우 심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품새, 겨루기, 격파에서 겨루기로만 단순화될 것이며, 생명을 담보로 한 무예의 본질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에 2세대 지도자들은 태권도가 경기화될 경우 대한체육회 정식가맹단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 단체들 중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이들을 통합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권도의 경기화는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운용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태권도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더욱 융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포츠경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예적 성격이 강한 태권도를 스포츠경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행되어야할 사안은 합리적인 경기규칙을 제정하는 일이다. 스포츠 경기규칙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경쟁조건을 조성해주고, 경쟁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며, 경기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고, 경기를 재미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주먹과 발로 직접 타격하는 무예적 성격의 활동을 경기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어야할 점은 치명타로부터 경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가라테경기가 선택한 것은 급소 앞에서 멈추는 촌지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승패의 판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심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판정의 객관성이 떨어지며, 관람스포츠로서 관중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태권도경기는 가라테와 달리 직접 타격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위험한 기술을 금지하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높이 차는 발기술을 장려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태권도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기술들은 그 어떤 무예의 기술보다 역동성을 띠게 되었다. 이를 통해 태권도는 다른 무예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2) 경기화로 인한 기술발전의 주요 이유

태권도가 경기화되면서 새로운 공격과 방어 기술들을 개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첫째, 경기태권도는 전통적 형식, 특히 품새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했다. 둘째, 학교를 중심으로 태권도겨루기만을 수련하는 다수의 팀들이 생겨났다. 셋째, 경기 자체는 기술들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기술들의 출현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첫째, 태권도는 경기화를 통해 일본 가라테가 갖고 있던 전통적 속성들, 예컨대 심판성의 강조, 종교적 정신주의에의 집착, 품새의 준시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존의 형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롭고도 독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가라테가 손기술 위주의 기예임을 고수하면서 심천무예적인 요소를 벗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데 반해서 경기태권도는 발기술 위주의 기예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화려하고 역동적인 기술을 추구하였고, 가라테가 종교적 정신주의를 고수했던 데 반해서 경기태권도는 축제적이고 다소 유희적이기까지 한 스포츠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가라테가 품새의 수련을 시종일관 강조했던 데 반해서 경기태권도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대인 자유겨루기를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발기술이 개발되었던 것이다. 특히 경기태권도는 정형화된 기술(품새)로부터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천무예라는 성격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둘째, 태권도가 빠른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학교를 중심으로 다수의 팀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태권도경기가 본격화되면서 겨루기만을 전문적으로 연습하는 팀이 출현하게된 것이다. 1963년 대한태수도협회 주최로 제1회 전국선수권대회가 열렸을 때 기술발전을 주도했던 집단은 전북의 지도관과 서울의 한국체육관이었다. 그러나 겨루기만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학교팀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경기태권도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게 되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태권도팀들은 정형화된 품새 기술을 완전히 부정하고 오로지 겨루기기술만을 연습하였다. 비슷한 연령, 비슷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함께 훈련하고 서로간의 기량을 거울으로써 상호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획기적인 기술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겨루기경기 전문지도자들이 출현하여 제3세대 지도자군을 형성하였고, 이들의 주도 하에 겨루기경기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셋째, 태권도가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태권도경기 자체가 갖는 특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경기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실제로 검증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하고 기술 간의 우열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약한 기술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효력이 검증된 기술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실효성이 검증되어 살아남은 기술은 짧은 기간 만에 거의 모든 선수들에게 빠르게 확산되며, 그 기술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의 출현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파 간 또는 학교팀 간 주요 기술과 훈련방법의 차이가 크게 줄었고, 기술들은 통일되기 시작했다.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국기대표선수제도가 시행되면서 경기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 역시 기술발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선수층이 두터워질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그런 만큼 선수들의 기량은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태권도의 경기화과정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권도가 놀라운 기술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경기화를 통해 이루어진 기술발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3) 경기화에 따른 기술발전의 주요 내용

태권도는 경기화되면서 손기술 중심에서 발기술중심 기예로 바뀌었고, 겨루기 상호작용이 공격-방어-역공격 3중 구조에서 공격-방어의 2중 구조로 바뀌었다. 또한 발등타법이 도입되면서 차기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PVC 몸통보호대를 도입함으로써 나래차기와 연속차기 같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했다. 또한 스냅과 몸체회전력을 활용함으로써 회전력을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돌개차기 같은 기술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세계무대에서 태권도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평가받게 되었으며, 이후 회전 격파와 다단계 격파 같은 태권도시범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기화에 따른 기술발전의 주요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가 경기화되면서 공격기술이 손기술 중심에서 높이 차는 발기술 중심으로 변하였다. 태권도가 발기술 중심의 기예로 변화한 이유와 관련하여 한국 도수무예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의 전통 씨름과 택견을 일본의 스모 및 가라테와 단순 비교할 때 분명 한국 기예는 일본 기예 보다 발기술을 훨씬 많이 이용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태권도가 한국 무예전통의 영향을 받아 발기술 중심의 기예가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태권도가 발기술 중심의 기예로 발전한 보다 중요한 이유는 태권도지도자들이 태권도를 경기화시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발기술, 특히 높이 차는 발기술을 장려하는 규칙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동양의 재래식 무예에서 공격은 대부분 발기술 보다 손기술에 의존했다. 발기술은 손기술에 비해 3배 정도 강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정확성이 떨어져 공격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격기술은 제 자리에 서서 혹은 이동하면서 손으로 공격하고 손으로 방어하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간혹 발을 공격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한 발을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높이 차는 것은 금물이었다. 태권도는 1967년 제3차 겨루기경기 규칙개정에서 한 발을 손으로 잡지 못하게 했고, 손 뿐만 발로 공격할 때, 그리고 같은 발이라고 몸통 보다 얼굴 부위를 공격할 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 점수제를 도입함으로써 높이 차는 발기술을 권장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태권도는 점차 발차기 기술 중심의 기예로 변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무예들에 비해 높이 차는 발차기 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둘째, 태권도는 겨루기의 상호작용 구조를 3중에서 2중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두 사람간의 상호작용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들었다. 손기술 중심의 재래식 동양무예에서 겨루기의 상호작용은 대개 공격-방어-역공격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3중 상호작용 구조는 동양무예에서 오랫동안 겨루기의

기본 틀로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경기태권도가 발차기 기술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격-방어-역공격이라는 3중 상호작용 구조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공격자가 연속해서 공격할 경우에 방어자는 사실상 방어-역공격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태권도 겨루기경기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방어와 역공격을 하나로 결합시킨 반격 기법, 즉 발기술인 발아 차기 기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반격기술은 특히 선으로 경계를 표시한 태권도경기장에서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역공격하는 기법으로 활용되면서 태권도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셋째, 태권도는 차는 발의 앞 축이 아니라 발등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타법을 도입함으로써 발차기 기술을 매우 빠르게 만들었다. 재래식 동양무예의 차기에서 타격부위는 대개 차는 발의 앞 축이나 옆 날이었다. 공격자는 상대를 차기 위해 발을 들어 무릎을 굽힌 후 발을 곧게 뻗으면서 발의 앞 축 또는 옆 날로 상대를 치듯이 한다. 이렇게 차기 위해서는 발등을 앞으로 곧게 뻗거나 위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발가락을 모두 뒤로 젖혀야만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종아리근육은 필연적으로 경직되며 그런 만큼 차는 속도는 느려지게 된다. 태권도지도자들은 발등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타법을 도입함으로써 발차기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들었다. 온 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가볍게 스냅을 줍다가 상대가 틈을 보이면 재빠르게 발등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발등타법의 도입으로 태권도 발차기기술은 한층 빨라졌다. 종아리가 경직된 상태에서 발로 차는 동작 보다 이완된 상태에서 발로 차는 동작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넷째, 태권도 발차기기술은 압축 스펀지를 넣은 PVC 몸통보호대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발전하였다. 해방 이후 초창기의 겨루기경기는 상대 앞에서 공격을 멈추는 촌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몸통보호대를 착용한 후 직접 타격 방식의 겨루기가 선호되었다. 1960년대에 겨루기에서 사용되었던 몸통보호대는 천에 대나무를 넣어 만든 것이었다. 이 보호대는 상대의 가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했지만 충격 흡수 기능이 약했고, 치열한 공방전에서 부러진 대나무가 천을 뚫고 튀어나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1970년대부터 PVC 몸통보호대가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보호대의 도입으로 예기치 않았던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에 사용했던 천으로 만든 대나무 보호대는 주먹이나 발로 가격할 경우에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강하게 가격하여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압축 스펀지 재질의 PVC 보호대는 가격 시 소리가 분명하게 나며 가격 후 나는 소리는 득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한 번의 공격에서 여러 차례 가격하는 기법을 개발해내었다. 단 한

처럼 공격발자라도 앞쪽 발을 빨리 움직여 연속해서 여러 번 찰 경우에 그 만큼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나래 차기와 앞발 연속 차기 같은 새로운 발기술이 등장했다.

다섯째, 태권도는 동체회전력을 활용하는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돌개차기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재래식 루에서는 몸을 돌려 차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다. 차기 위해 몸을 돌릴 경우에 자연히 등을 보여 상대에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게 되고, 동시에 순간적으로 상대를 시야에서 놓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돌려 차기는 종종 장님차기(blind kick)로 불렸다. 그러나 태권도 겨루기경기에서는 제자리 스텝 중 발을 바꾸고,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전동작에서 추진력을 얻어 앞발을 축으로 몸을 한 바퀴 더 돌아 가격하는 공격 기법이 나타났으며, 이를 돌개차기로 칭한다.

4) 전자호구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

태권도경기가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경향은 과열화양상을 띠게 되었고, 그 결과 심판 판정에 대한 시비가 잦아지 않고 발생하였으며, 태권도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경기의 공정성문제는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지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되어야만 했으며, WTF는 판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런던올림픽경기에 전자호구와 비디오판독을 세계에 도입하였고,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전자헤드기어까지 도입했다. 전자채점시스템의 도입으로 심판판정에 대한 시비가 많이 사라졌지만 경기태권도의 지형도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겨났다.

첫째,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선수들은 점적이며 힘이 약하지만 점수 획득에 유리한 앞발차기기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센서를 작국하여 점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보니 선수들은 상대를 강하게 타격하는 차기 기술 보다 가볍게 터치하여 점수를 얻는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태권도경기는 탁-탁싱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둘째,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전혀 운동선수처럼 보이지 않는 체형의 선수들, 즉 키가 크고 팔과 다리가 길며 마른 체형의 선수들이 경기에서 유리하게 됨으로써 선수들의 체형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셋째, 강한 타격보다 전자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유효타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태권도기술과는 매우 다르고 독특하며 우스팡스럽지만 점수획득에 유리한 신기술들이 대거 등장했다.

판정시비의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태권도경기에 도입된 전자채점시스템은 여전히 보완되어야할 부분이 많다. 현재 전자헤드기어로 커버할 수 없는 얼굴 안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터치가 아닌 타격만을 유효타로 계측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발보호대에 부착된 센서에서 발생하는 오작동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발등과 발바닥으로 확실하게 공격해야 득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의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보호대 및 헤드기어의 디자인이 개선되어야 한다.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Though the Rise of Sports Taekwondo

Hyeong-seok Song
(Ky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Taekwondo)

Jin-bang Yang
(Yong In University Department of Taekwondo Instruction)

Udo Moenig
(Youngsan University Department of Taekwondo)

학과명문
요철

1.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Taekwondo is a Korean martial art and cultural product that succeeded in globalization. The number of official member countries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as of 2017 is 208. Taekwondo is also an official sport at the Olympics, which is the world's largest sports festival, organized every four years. The only sports originating from East Asia among the 28 official Olympic events are judo and taekwondo. Meanwhile, the number of taekwondo practitioners around the globe is estimated to be at 100 million, and it is reported that there are 9.6 million black belt holders around the world. The number of taekwondo practitioners is actually higher when counting those which are not affiliated with the WTF. Among the WTF-organized, international competitions are 659 sparring events all around the world. When including forms (poomsae) contests and other national and regional competitions, the number of tournaments is much higher. These numbers demonstrate that taekwondo has succeeded in globalizatio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s behind the success story of taekwondo's globalization. Various factors contributed to the success, such as the devotion of individual taekwondo instructors who went abroad to spread taekwondo, skillful leadership of the leading taekwondo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KTA), the Kukkiwon, the WTF, and th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b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Moreover, the philosophical depth of taekwondo as an Asian martial art, a set of unique technical skills characterized by dynamics, and an open attitude that has not resisted harmony and integration with other cultural phenomena, made it possible to captivate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of taekwondo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stages for examination. The first stage was the period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until the 1960s, when taekwondo was introduced to other countries while not having a clear identity as a distinctive martial art yet. The second stage constituted the early 1970s to the 1990s, in which the taekwondo establishment focused on quantitative growth with the goal of being recognized as a global sport. Subsequently, the third and last stage has been from the early 1990s to now.

when taekwondo was selected as an official sport for the Olympics and various efforts were made for the qualitative advance of taekwondo. This study aims to examine each period of globalization in detail.

1) The first period of globalization

Taekwondo was first spread overseas during the early 1950s, when a small number of taekwondo practitioners went abroad for studies or migration to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presented a popular destination where taekwondo instructors started to teach in local communities. During that time, the spread of taekwondo overseas was not organized or systematic, but sporadic, initiated by individuals.

Organized globalization of taekwondo began in earnest during late 1950s. With the visit of the South Vietnamese president to Korea in 1958, the military taekwondo corps was organized and introduced taekwondo abroad by taking tours to Vietnam and Taiwan. Meanwhile, with the onset of the Vietnam War and the United States increasing involvement during the early 1960s, soldiers from various nations were sent to Vietnam as part of an international force. These soldiers were impressed by taekwondo demonstrations of Korean military instructors who taught hand-to-hand combat to the Vietnamese troops. Upon completing their tours to Vietnam, some of these soldiers invited Korean taekwondo instructors to their respective home countries, which helped to advance the international image and spread of taekwondo.

Choi Hong Hi, a general in the Korean military and leading figure in the Korean martial arts community at that time, was appointed Korean ambassador to Malaysia in 1962, which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aekwondo to Southeast Asia. In 1966, Choi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 which sent many instructors abroad. Subsequently, the fir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organized by the ITF, were held in Hong Kong, in 1968.

To sum up, during the period after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until the late 1960s, a variety of efforts were initiated to globalize taekwondo, and taekwondo spread to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Asia, America, and Europe. However, during that time, taekwondo was largely indistinguishable from Japanese karate, which already had spread internationally earlier, in terms of philosophy, technique, training methodology, and sparring and competition rules. In fact, taekwondo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martial arts spirit, which is characterized by silence and the belief in single, fatal blows. For example, the fir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held in Hong Kong were more or less similar with Japanese karate tournaments in terms of competition methodology and rules. Moreover, many Korean instructors abroad at that time advertised their art with the better-known martial arts names 'karate' or 'Korean karate', instead of the lesser recognized term, 'taekwondo.'

2) The second period of globalization

In the early 1970s, the ITF and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KTA) put forth different opinions for issuing dan(black belt) certificates for foreign practitioners and in regards to competition rules. As a result, the two organizations were at odds with each other. Despite multiple meetings and efforts, a compromise could not be reached; therefore, the KTA begun to initiate its own plans for globalization, separately from the ITF. During this process, Kim Un Yong became the chairman of the KTA in 1971, while in 1972, the chairman of the ITF, Choi Hong Hi, sought asylum in Canada out of fear of political prosecution by the Park Chung Hee regime, resulting in a reshuffling of the Korean taekwondo leadership.

Kim Un Yong, who became the central figure of the taekwondo community in Korea, had many tasks ahead for developing taekwondo further. Kim perceived it as urgent

to unify the numerous taekwondo factions, to elevate taekwondo to a 'national sport,' establishing a World Taekwondo Headquarters called the Kukkiwon, and to promote taekwondo as a sport for all to the global communit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Korea's national prestige. Consequently, in late 1972, the Kukkiwon was established as the central gymnasium with the goal of unifying the various taekwondo factions. In addition, the KTA mapped out plans to swiftly globalize taekwondo.

During the 1970s, the KTA's strategy for taekwondo's globalization was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aekwondo from being a 'martial art' for practical self-defense to a competition-based, global 'sport.' Sports taekwondo increasingly expanded since the early 1960s, and by the 1970s, it played a vital part in the process of globalizing taekwondo. Due to this course, there were various apparent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aekwondo's teaching methodology and technique, thereby, taekwondo developed into a distinct martial art from Japanese karate. Moreover, during this process, taekwondo practitioners of various countries have been connected by a varie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mpetition events.

Amidst these efforts, the fir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in Seoul on May 25, 1973, were organized. Prior to this event, there no standardized competition rules and qualification methods existed. Consequently, the tournament contributed greatly in creating an image of taekwondo as a sport. Moreover, it was an important occas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aekwondo as an international sport. Five days after the event, the WTF was inaugurated in Seoul on May 30, to provide the cornerstone for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Subsequently, taekwondo joined the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in 1975, under the initiative of the WTF. Moreover, taekwondo was selected as an official event for the Military World Games in 1976 and 1978. At the same time, the Asian Taekwondo Union and African Taekwondo Union were founded. At the 83rd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held in Moscow in 1980, taekwondo was approved as an Olympic event, and at the 20th Pan American Sports Organization meeting held in Caracas in 1983, taekwondo was selected as an official sport for the Pan-American Games, which is the second most prestigious sports event following the Olympics. At the Olympic Council meeting of the Asian General Assembly, held in 1984, taekwondo was selected as an official sport for the 1986 Asian Games, and in 1986, it was selected as an official sport by the 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Previously, at the 90th IOC session held in Berlin in 1985, taekwondo selected as a demonstration sport for the 1988 Seoul Olympics, and in 1987, taekwondo was selected as official sport for the Southeast Asian Games and the South Pacific Games. Finally, at the 103rd IOC session held in Paris in 1994, taekwondo was unanimously voted to be an official sport at the 2000 Sydney Olympics. With taekwondo being selected as an official sport at the Olympics, Korean became the fourth official Olympic language, following English, French, and Japanese.

In summary, during the course of the second period of taekwondo's globalization process, the efforts focused on taekwondo as being recognized as a s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is period, taekwondo leaders were able to construct a unique identity for taekwondo by emphasizing taekwondo's historical connections to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s, which center technically on foot work and kicking. Moreover, this technical aspect, by design or accident, was applied to the format of taekwondo's competition rules. Furthermore, by integrating into the existing sports infrastructure, taekwondo was able to quickly spread globally.

3) The third period of globalization

In the early 1990s, after taekwondo was selected as an official Olympic sport,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progressed with two main features. The first feature is related to efforts maintaining taekwondo's position as an official Olympic sport, and the second feature is rela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taekwondo's training and competition activities. Actually, taekwondo was able to assimilate and adopt activities, which were previously not connected to martial arts, thereby, expanding its pool of practitioners greatly.

The status of an official Olympic sport is not permanent. If problems arise, a sport can be removed from the Olympic program at any time. After the 2000 Sydney Olympics, it was pointed out that taekwondo was lacking interest as a spectator sport, and that there were continuous issues over fair judgment. As a result, the taekwondo establishment set out to tackle these problems.

The WTF made various efforts to make taekwondo match-

es more entertaining. Differential scoring was expanded to make comebacks of athletes during matches possible, while also changing the rules to give penalties for excessive defensive or lack of offensive behavior of athletes. Furthermore, the simple black-and-white taekwondo uniforms were changed to be more colorful in order to maximize visual effects. Recently, beach taekwondo tournaments were organized with athletes wearing relaxed and fashionable summer-inspired outfits. Efforts were also made to diversify taekwondo activities, such as introducing taekwondo forms (poomsae), demonstration, and breaking tournaments. Moreover, five-member and three-member team competitions are planned and tested to add excitement to the somewhat simple, individual sparring contests. In addition, the WTF worked on providing solutions to issues on fairness that were consistently brought up due to frequent controversial decisions. The WTF decided to implement an instant video replay system and an electronic body protector(hogu) system, with the goal of eliminating subjective judging. The new electronic boy protector system went through numerous verifications and was finally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2012 London Olympics. As a result, controversies over decisions in Olympic matches reduced drastically, but there were still disputes over referee calls on points earned by head kicks. Therefore, the WTF introduced an electronic headgear system as well. Finally, after several trial runs in various international tournaments, the e-headgear was used in the 2016 Rio Olympics. As a result, there was an almost universal absence of arguments over judging and decision making during these games. Consequently, the issue on fairness, which made taekwondo's position in the Olympics vulnerable, was finally resolved.

Another feature that gained attention during the course of taekwondo's globalization after the 1990s was a diversification of opportunities for Korean taekwondo instructors going abroad. Instructors are now dispatched through various programs, as individuals or in coordination with university taekwondo departments, which are part of cooperation projects organized and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Kukkiwon's overseas instructor dispatch programs, and the World Taekwondo Peace Corps.

Another characteristic demonstrated by taekwondo during its third globalization process is taekwondo's ability of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Unlike the martial arts of China and Japan, which are less willing to absorb other cultural phenomena, taekwondo has been assertively taken on other cultural elements. As a result, taekwondo was able to develop into a cultural constituent, which is rich in diversity. Music, dance, aerobics, boxing, educational programs, diet programs, sports, marketing programs, and performing arts, such as theatre and musicals, are just a few examples of the cultural, diverse activities which were integrated into the umbrella of taekwondo activities. With such rich diversity, taekwondo was rejuvenated as a competitive cultural product which could satisfy the various needs of consumers in the diverse global market. Through taekwondo, consumers around the world have become able to satisfy their desires for dance, exercise, diet, character building and education, curiosity about Oriental mentality, and entertainment.

Over the past half century, taekwondo made strenuous efforts to globalize and was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n international sport. Taekwondo training, which is based on respect for humanity, allows people around the world to become aware of the value of manners, while becoming physically healthier. Moreover, taekwondo educ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activity for character education and daily physical activity. In the 21st century, which is being called the century of culture, there are still boundless possibilities for taekwondo to contribute to peace and unity of the global community as a representative cultural product of Korea.

2. Sports Taekwondo

1)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aekwondo competitions

The biggest change during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since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Japan was its transition from a martial art to a combat sport. Before the Korean martial arts community unified under the name 'taekwondo' during the 1960s, the different martial arts schools used a variety of different names for their respective styles, such as hwasudo, dangsudo, gongsudo, gweonbeop, subakdo, ortaesudo. Moreover, during the course of taekwondo's modernization, the leaders chose to take the path of transforming taekwondo into a combat sport. Prior to taekwondo's transformation into a combat sport, simple sparring contests played a minor role in general taekwondo training activity. During the period until

the Korean War, first generation instructors emphasized mainly non-contact sparring engagements during training. However,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influence of first generation instructors weakened in the Korean martial arts community, and as second generation instructors, who learned martial arts exclusively in Korea, rose to power, full-contact sparring matches started to become popular.

There were fierce debates on the subject of turning taekwondo into a combat sport in the 1960s. First generation instructors, such as Choi Hong Hi and Hwang Gi, vehemently opposed this direction, while second generation instructors, such as Lee Jong Woo, actively supported turning taekwondo into a combat sport. The main concern of first generation instructors was that if taekwondo was turned into a combat sport, standards for judging skills would be simplified, excluding forms (poomsae) and breaking, and focusing only on sparring, a course, they perceived, would damage the essence of martial arts. On the other hand, second generation instructors claimed that if taekwondo became a combat sport, it would be possible to join the Olympic Games in the future, and thereby, the different quarrelling martial arts groups and instructors would necessarily unify under a single taekwondo organization. Moreover, by joining the Olympics, taekwondo would dominate the martial arts world. Transforming taekwondo into a combat sport was pushed even stronger with the appointment of Kim Un Yong as the chairman of the KTA, in 1971. He believed that for taekwondo to develop,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 was essential to change taekwondo into a combat sport.

The first task of turning taekwondo into a combat sport was streamlining and standardizing the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rules have to create fair conditions for athletes, guarantee their safety, and make the execution and operation of competitions efficient and entertaining. The most important aspect in a full-contact martial art environment is to protect competitors from fatal blows. The method that Japanese karate matches opted for was non-contact sparring, which means that an athlete stops a blow right before striking a vital point. This method, however, depends completely on the subjectivity of judges in choosing winners. Moreover, these rules might be less attractive for spectators.

Unlike in mainstream karate, taekwondo leaders chose full-contact rules and introduced protective gear as mandatory protection for athletes. Taekwondo competition rules also prohibited certain dangerous strikes, such as punching to the face, while focusing on kicking techniques. As a result of the chosen rules, taekwondo developed a great variety of kicking techniques and a dynamic games style, which greatly distinguished taekwondo from other martial arts. Consequently, taekwondo was able to gain a unique identity and differentiate itself from other martial arts.

2) Main reaso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iques in taekwondo

The reason taekwondo was able to develop new offensive and defensive techniques was due to a combination of three factors. Firstly, competition taekwondo broke from traditional conventions, especially, through excluding forms (poomsae) contests as a part of tournaments. Secondly, many teams, mainly in public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founded that trained exclusively for taekwondo competition. Lastly, sparring matches proofed or disproved the usefulness of techniques, which promoted the development of new skills.

By transforming taekwondo into a combat sport, it was possible to overcome the traditional features of Japanese karate, such as an emphasis on real fighting, an attachment to spiritual doctrine, and an emphasis on forms (kata or poomsae). By boldly breaking away from such formats, taekwondo was able to develop new and unique technical skills. While karate technique emphasized hand techniques and tried to keep its spirit as a real martial art, competition taekwondo attempted to change into a sport with an emphasis on spectacular and dynamic techniques. While karate held on to its traditional doctrine, taekwondo transformed into a pleasurable sports activity. While karate kept emphasizing forms training (kata), competitive taekwondo made free sparring the central training and competition activity,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a wide range of foot techniques. In particular, taekwondo not only broke free from static skills and repetition (forms), but also left the martial arts character of real fighting for survival behind,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develop new techniques.

The second factor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new taekwondo techniques was due to the creation of many teams, predominantly in public schools, which practiced only sparring for competitions. When taekwondo (then under the name taesudo) became an official sport at the Ko-

rea Sports Festival in 1963, organized by the Korean Taesudo Association (the forerunner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the groups that predominately led technical developments were the Jido-Gwan of Jeonbuk and the Hankuk Gymnasium of Seoul. However, with the creation of public school teams, athletes of these teams began to lead technical developments in competition taekwondo.

Taekwondo teams that were formed in public schools completely disregarded traditional forms (poomsae) training and techniques and practiced only sparring skills. By having athletes of similar ages and skill levels constantly train together and challenge each other, new techniques and skills were rapidly developed. In addition, instructors specializing in sparring training and coaching appeared to form a third generation and distinctive group of instructors. These instructors pioneered further developments in sparring skills.

Lastly, another reason behind taekwondo's technical development can be found in the characteristics of taekwondo matches. Sparring matches verify existing skills in a competition environment. Free sparring assesses the realism, usefulness,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ifferent techniques. Techniques than are not useful in competition naturally disappear, while those than prove effective endure. Those techniques and skills than proved to be useful were quickly copied by other athletes. Through this process, the differences of skills and training methods among different school teams began largely to disappear, and new sets of skills and technique became universal. Another cause for the rapid increase of the taekwondo population was the inauguration of the fir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in 1973, which played also a major factor in taekwondo's technical development. A bigger pool of athletes and competitions helps to improve skill levels. These constituted the main factors for taekwondo's technical development. Subsequently, this study focuses on the technical aspects of this transformation.

3) The main aspects of taekwondo's technical transformation into a combat sport

With the transformation of taekwondo into a combat sport, taekwondo turned from a martial art with an emphasis on hand techniques into a sport with a focus on kicking techniques. Moreover, the interaction between athletes in sparring shifted from a triple pattern of 'attack-defense-(or block)-counterattack' to a dual pattern of 'attack-counter-attack.'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instep roundhouse-kick, the speed of kicking techniques increased. Moreover, the introduction of the ethafoam trunk protectors gave birth to new kicking techniques, such as combination kicking, double-roundhouse-kicks, and tornado-kicks. These techniques were exclusively developed by taekwondo athletes, and became subsequently highlights of demonstration taekwondo performances, which focus on athletic jump kicks and multiple board breaking kicks.

The technical transformation of taekwondo into a combat sport can be explained in more detail. First, with the transformation of taekwondo into a combat sport, attacking shifted from a focus on hand techniques to high kicks. Many people talk about the tradition of Korean dosumuyae (hand-to-hand martial arts) when explaining the reasons behind taekwondo changing into a martial art that focuses on kicks. When making a simple comparison of Korea's traditional ssireum (wrestling) or taekyon with Japan's sumō or karate-dō, Korean martial arts use much more foot techniques than Japanese martial arts. From this aspect, the claim that taekwondo became a martial art focusing on footwork due to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s seems to make sense. However, a bigger reason for taekwondo developing into a martial art heavily dependent on foot techniques is that taekwondo instructors intentionally enacted rules that encouraged kicking, and especially high kicks, during the course of transforming taekwondo into a combat sport. Traditional Asian martial arts were more reliant on techniques using the hands. Even though kicks are about three times stronger than hand strikes, they are comparatively slow and lack accuracy. Therefore, traditional Asian martial arts focused mostly on attack and defense techniques using hands, whether stationary or with steps. While kicking techniques were sometimes used for attacking, high kicks, especially, are susceptible of being caught, grabbed or locked by the opponent. With the third revision of taekwondo competition rules in 1967, grabbing or holding the leg became an illegal move. Moreover, the rule amendment that year introduced higher scores for kicking techniques than punching techniques. Moreover, high kicks were encouraged over kicks to the trunk. As a result of these decisions, taekwondo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martial art focusing on kicking.

Another feature in taekwondo's technical development was the shift in sparring from a triple pattern of attack-defense-(or block)-counterattack to a dual pattern of

attack-counterattack, which considerably contributed to an accelerated speed in sparring matches. In traditional Asian martial arts, which center on the use of hand techniques, the interaction in sparring is mostly comprised of the triple pattern of attack-defense-counterattack. This triple pattern structure has been accepted as the basic framework for sparring in Asian martial arts for a long time. However, with sports taekwondo shifting to be more dependent on kicking techniques, the triple interaction structure of attack-defense-counterattack was not effective any longer. One reason is that when the opponent continuously attacks, the defender has difficulties in reacting with a pattern of defense-counterattack. In order to offset this structural flaw, taekwondo athletes developed direct counterattack skills, which omitted the second step - namely, the defense or block - and counterattacked directly. These skills and strategies developed into key techniques of taekwondo.

Furthermore, a method of kicking the opponent with the instep instead of the ball of the foot when executing a roundhouse-kick was introduced, which contributed also to an increase of kicking speed. In traditional Asian martial arts, most kicking techniques are executed with the sole or ball of the foot when striking. The attacker raises his bent leg, straightens it with a snap motion, and strikes with the ball of the foot or other parts of the sole, while the toes are bent backwards. This motion causes the calf muscle to stiffen, thus, slowing down the kicking speed. Therefore, taekwondo instructors devised kicking techniques using the instep in order to make kicking faster. While executing a roundhouse-kick with the instep, athletes were able to strike much faster and in a biomechanically more natural and relaxed posture.

Taekwondo kicking techniques transformed once agai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thafoam trunk protectors. Earlier sparring, follow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Japan was mainly carried out following non-contact rules, where the attacker would stop the attack shortly before actually striking the opponent. However, after the introduction of body protectors during the 1960s, full-contact sparring became increasing popular. These body protectors consisted of fillings with bamboo, covered by a strong fabric, which protected the body from strikes by the opponent. However, these protectors only absorbed low impacts, and there were instances in some fierce matches where a broken bamboo would protrude out of the cloth, and injuring the competito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body protectors with ethafoam fillings were introduced during the mid-1970s. This new protective gear brought about unexpected changes in techniques. The protectors made out of bamboo and fabric used in the past did not produce any sounds when kicking it with the foot, and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competitors was striking hard to powerfully impact the opponent. However, the body protectors with ethafoam resonated with a strong 'bang' sound when kicked with the foot. Therefore, soon after, the bang sound became an indicator for point reward. As a result of this new scoring policy, a variety of new kicking techniques emerged, such as turn- and double-kicks.

Lastly, taekwondo introduced techniques using turning forces, which promote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iques, such as the turn- or tornado-kick. Turning the body to kick was rare in traditional martial arts, because doing so makes the attacker vulnerable to counterattacks. Moreover, the attacker cannot see the opponent for a brief moment while turning. Therefore, the spinning-back-kick (or spinning-hook-kick) was also sometimes referred to as 'blind kick'. However, the acceleration of the rotation of the turn-kick is performed very drastically, gaining great momentum, and leaving the attacker less vulnerable to counteratta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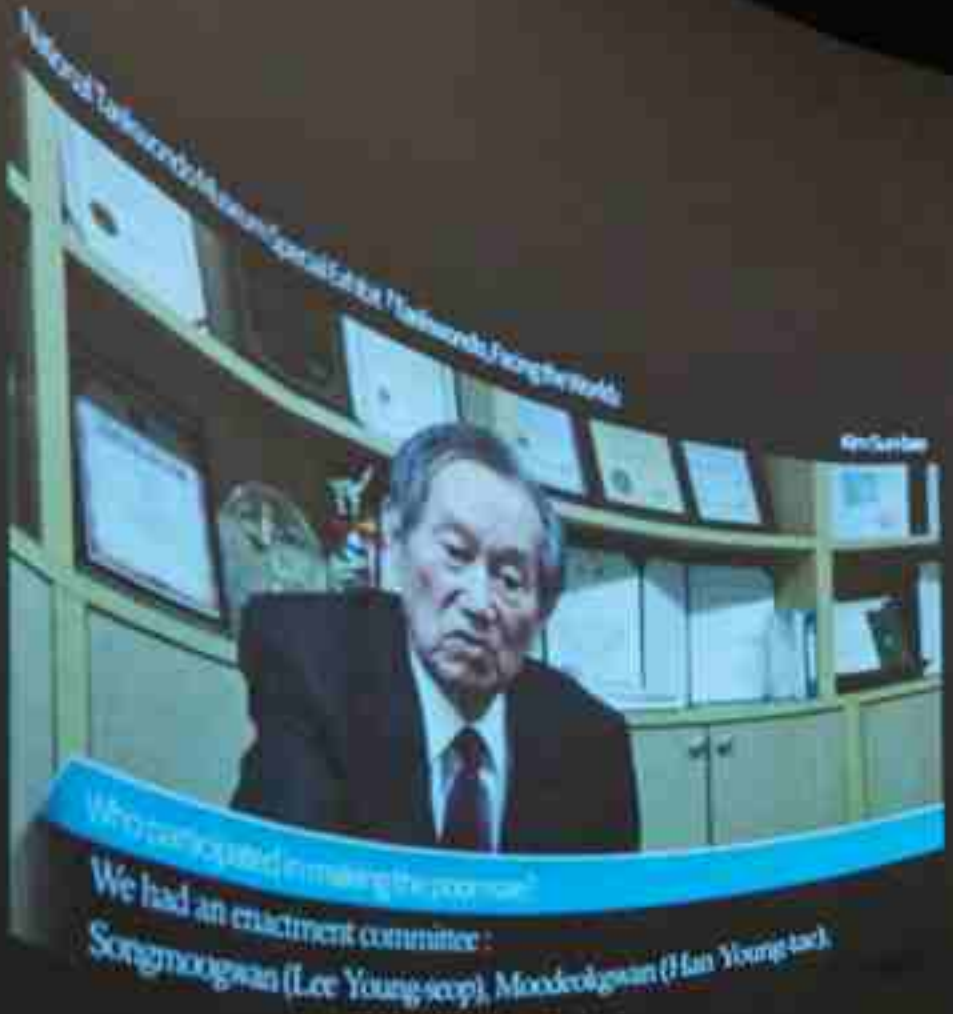
4) Changes after introduction of the Protector and Scoring System (PSS)

After taekwondo was selected as an official Olympic sport, competitions became increasingly fierce and there were frequent disputes over referee calls, thus, creating doubts over the fairness of taekwondo matches. The issue of fairness was an important factor, which threatened the status of taekwondo as an official Olympic sport, which had to be addressed. Therefore, the WTF newly introduced the electronic hogu (body protector) and an instant video replay system to the 2012 London Olympics to ensure objectivity of judgment during the games. Subsequently, in the 2016 Rio Olympics, the electronic head gear was also introduced. The introduction of the PSS drastically reduced disputes over referee calls, but it also resulted in a variety of changes of sports taekwondo.

After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competitors began to prefer front leg kicking techniques, which are weak but proofed to be an easy way to earn points. Since the elec-

tronic body protectors and e-headgear seem to record relatively weak strikes, strong force while kicking seems no longer a major factor in earning points. Some even started to call taekwondo sparring "foot-fencing." Moreover, the introduction of the PSS gave advantage to tall and lanky athletes who appear less athletic, since long legs and reach are paramount in this new system. Lastly, the PSS records points indiscriminately upon impact; therefore, a variety of non-conventional scoring techniques emerged, which sometimes look comical and they certainly would not be recognized by human judges as 'proper' scoring techniques.

The PSS certainly needs improv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measure to electronically record facial strikes, since the face is not covered by the e-helme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liable technologies that measure strong blows instead of already recording simple taps. In addition, malfunctions, which seem to occur often, have to be eliminated. Lastly, the protector and head gear design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enhance the dramatic effects of matches.


We had an enactment committee :
Songmoogwan (Lee Young-seop), Moodeokgwan (Han Young-sae),

전시장 둘러보기

도판목록

태권도의 조직화

001.
청도관 상징패
지름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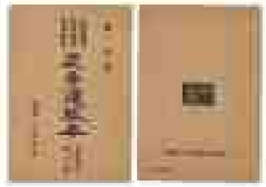
002.
송무관 상징패
지름 29

003.
정도관 상징패
지름 27.3

00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33.5×22

005.
지도관 상징패
지름 27.7

006.
오도관 상징패
지름 26.4



007.
화수도교본
1949 | 18×12.5 | [illegible] 기증

008.
대한태권도협회 상징패
지름 20.3 | [illegible]

009.
무덕관 상징패
지름 28

010.
강덕원 상징패
지름 27.7

011.
대한태권도협회 페넌트
37.8×22.1, 족보길: 36.2

012.
대한태권도협회 상징패
지름 27.5 | [illegible]

013.
창무관 상징패
지름 27.7

014.
한무관 상징패
지름 28.5

015.
대한태권도협회 배지
지름 2 | [illegible] 기증

016.
대한태수도협회 단증
1964 | 27.5×39.5 | [illegible] 기증

전시 2016년 12월 16일~2017년 8월 27일
주최 태권도진흥재단

총괄 김성태, 김중헌

전시
총괄 김영유, 석동준
기획 류선희
진행 이혜진, 임희정, 김광연, 김영미, 김병국, 임정민
시공 디엑스디자인플래닝

도록
편집 류선희, 김정연
교열 서난영, 임희정
자료정리 김병국, 최지향, 김서은
사진촬영 한정엽(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

이번 전시에 도움을 주신 분들

단체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WTF
기증자 강신철, 김경곤, 김종훈, 김명식, 김영각, 김용희, 백진인,
서봉기, 서영애, 안해숙, 유신기, 이경명, 이대순, 이상철,
이상미, 이승국, 이승완, 조점덕, 최영길, 최영렬, 허민욱
자료 대여 김영수, 김태훈, 김희영, 박준수, 이대훈, 이진화, 차동민